

대개 할 일은 미리 생각해
 힘써 할 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마음먹고 날마다 뒤로
 면 제 할일은 그 때를 놓치지 않으리라.
 (法句經·솔현품 2절)

東大新聞

발행 주 편	행 정 부 장	인 사 부 장	민 중 관 계 부 장	법 률 부 장	전 산 부 장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제 1097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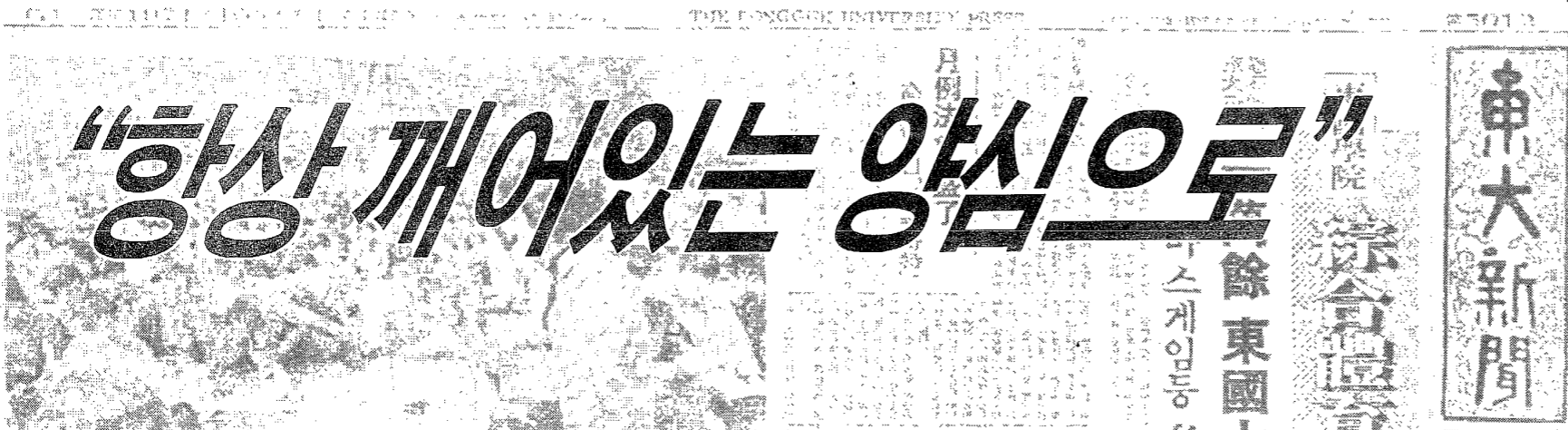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호 창간호(가)인정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2년(단기4325년)4월15일 (수요일)

[1]

◆필화사건으로 살펴본 동대신문의 역사적 진실



제퍼슨은 '정부 없이는 살 수 있
 어도 신문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
 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이다.
 억압과 굴종을 거부하고 항상 민
 족자주언론의 선봉에 서고자 했던
 동대신문이 오늘로 창간 42주년을
 맞는다. 이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숫자의 기념만이 아니라 그속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온갖 수
 난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말해
 준다.

본지 2호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1952년 6월 발간하게 되지만 조연
 현 동문의 '동국대학과 나라'라는 글
 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이
 유로 보일리실에서 불태워지고 만
 다.
 동대신문은 그해 10월1일 발행
 된 타블로이드 4면 '동국일보'로 간
 신히 명맥을 잇는다. 이 신문 역시
 1면에 게재된 이형기의 논문과 학
 장의 적려사, 이종출의 '경사진 항
 구'라는 시가 탈영이 되어 중단되

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동국일보'는 1955년 7월7
 일자로 '동대시보'로 바뀌게 되고
 지금과 같은 제호는 1962년 7월6
 일자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동대신문은 대학지성의 울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대학가의 여
 론을 조성하는 등 살아있는 언론으
 로서 시대와 함께 해왔다.
 1964년 4월24일자에 4·21 굴욕
 적 한일회담 반대와 관련 '다시 이
 거리에 피를 뿌리다'라는 제목과

이 사건은 '민주'를 외치면서도
 민주를 싫어했던 이의 손길이 학내
 까지 자연스럽게 뻗어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성은 이디서나 괴롭다고 한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만 하는 모
 기자들을 두고 한 말인가.
 그러나 대학신문지자는 괴롭지
 않다. 대학지성의 올바른 증언자이
 기에...
 '꼭 밟아야 한다던 모르피 밟지
 않아도 된다'란 함부로 밟을 것은
 아니다. '보리를 두고 한 말인가'
 보리는 꼭꼭 밟아야 하지만 자
 라는 민주의 썩은 밭을 수 없다.
 자주와 민주를 열망하는 이들을 없
 일 수는 없다.
 1945년 해방이래로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비리와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왔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그런 행
 위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대신문은 시대의 증언
 자로서,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대학
 신문의 선봉에서 서 왔다.
 근래 대학언론단합이 심해지고
 있다. 고대신문, 연세춘추, 서강학
 보 등 지난 90년이상 일대 광풍이
 불고있다. 물론 대내적인 것이라고
 는 하지만 대학의 심장부에서 구성
 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온 피수대를
 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학교의
 홍보지 차원으로 전락시키려는 음
 모.

이렇게 허물어질 수는 없다. 편
 집자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동대신문은 어느 특정이 아닌
 학생, 교수, 직원, 대학원생 등 모든
 동국인을 일로 전진시키고 사상·문
 화적 갈구를 채워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경애 기자)

창간준비호 압수처분...수난사 예고

'회전무대' 만화 등 사회비판 내용 검열 걸려

1947년 가을 문과에 재학중이던
 박종선, 정익용 등을 중심으로 신
 문창간 준비가 이루어졌다. 타블로
 이드 4면 '동국일보'의 창간.
 그러나 개재된 몇편의 논문이 정
 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점과 정동문
 이 쓴 교수 프로필에 문제가 있다
 는 이유로 배부되지도 못한채 압수
 처분을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창간호와 이듬해인
 신문은 1950년 4월15일 당시 중앙
 학생회 회장이었던 신국주와 이의
 윤, 박내춘, 이종환, 오봉열 등 신
 문동호인들이 유산되고 만 '동국일
 보'의 뒤를 이어 만든 대판 4면의
 '동대신문'.

창간호를 내기까지 많은 어려움
 을 겪었던 동대신문이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은 않다. 각종 필화사건
 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초기부터의 갖은 필화사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
 다.
 해방직후 북풍터지듯 급격히 중
 가한 좌·우의 사상의 혼란과 그로
 인한 좌익사상에 대한 탄압은 교육
 의 현장에서 가시화되었고 사상
 이 아닌 사실보도에서조차 자유의
 틀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한도후 1953년 4월부터 양
 주동교수의 지도하에 '동국일보' 3
 호가 속간되면서 동대신문은 기반

함께 실린 사진 3장과 보도가 문제
 가 되어 학교당국은 신문을 압수
 소각 처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해 8월7일 6·3사태로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계엄군이 대
 학에 진주, 신문은 전면적 검열을
 받게 된다.
 이로써 대학신문은 한차례의 흥
 역을 지르지만 어둠과 혼돈의
 시대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
 현하지 못할 때의 몸부림은 얼마나
 처절했는가.
 결국 7월30일 계엄령이 해제된
 바로 다음날의 사건을 본지 '회전
 무대'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인사 일행, 공갈협박차 내곡'라
 는 제목으로 '테모'가 다시 일어나
 면 계엄령을 10년 선포하여 뿌리를
 뽑겠다' '개새끼들 다시 테모하면
 총살을 시키겠다'는 등 은풍 공갈
 (?)의 내용이 갈수록이 울췌던 것
 이다. 신문은 여지없이 소각처분된
 다.

이제 제치와 함께 어떠한 탄압하
 에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빛이 되어
 공정함과 비판적 사명감으로 대학
 의 주체를 이끌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들어서는 필화사건을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유신 직후 신문제작사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사건에 검열을 받도록

씨에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소요사태를 전투경찰이 학내에 들
 어와 강제 해산시키는 것도 불만인
 학생들 할 법보다 주먹이 번쩍이
 는가?'라는 내용이 실린다. 그리고
 당연히 배교가 중단된다.
 사실 5공초기에는 유신시절과 마
 찬가지로 사건에 검열을 받아야만
 했으니 '전'자의 '전'자만 실려도 배
 포중지가 될 정도였던 것이다.
 84년 9월 분사 기자들은 백상재
 전 초청강연회 요지를 게재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백기완, 고은, 여익구가
 초청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하
 다. 이로인해 학교당국과 마찰을
 빚게돼 농성을 시작으로 2주 휴간
 면 계엄령을 10년 선포하여 뿌리를
 뽑겠다' '개새끼들 다시 테모하면
 총살을 시키겠다'는 등 은풍 공갈
 (?)의 내용이 갈수록이 울췌던 것
 이다. 신문은 여지없이 소각처분된
 다.

◆지면안내◆

- 3면 해설-등록금협상 타결
- 4면 재벌우위의 '재벌경제'예고
- 5면 시리즈 <우리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 6면 4·19세대의 기개와 변절
- 7면 창간 특집 기획
- 8면 타종교 동아리 가입에 대해
- 9면 시리즈 <이시대의 우리 문학>
- 10면 기획-재단혁신의 구체적 방도
- 11면 취재-전대협총회
- 12면 매체비평 'sbs살림장단'

창간 42주년 기념 자축연

민족자주언론의 선봉에서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본지가 창간 42주년을 맞아 오
 는 21일 오후 6시30분 교수식당(다량관 2층)에서
 자축연을 갖습니다.

사설

대학신문의 새 위상 설정돼야

대학의 존재가치 중의 하나는 사회건설의 지표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낡은 학문을 극복하고 부단하게 증진된 새로운 이념의
 생산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심장부로서의 기능
 이 바로 대학의 불변하는 미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한 대
 학본질의 원만한 구현을 위해서는 바로 한발 앞서 나가며 눈여
 끼는 안내자와 감시자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대
 학신문의 참다운 의의가 출발하게 된다.

오늘 창간 42주년을 맞는 동대신문은 물론이거니와 각 대학신
 문이 그동안 겪어온 굴곡과 굴절의 자취가 역력하고, 여전히 힘
 겹게 다가오는 내외적 압박과 간섭을 원천무결하게 극복하지 못
 하고 있음이 일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사 내지 대학
 사를 살펴해나갈 때 대학신문의 갈피마다 때로는 것들려 있고,
 때로는 의연하게 일어서는 자화상을 보게 되면서 그나마 대학신
 문이 여전히 각종의 부당한 길들이기에 종내 순진되지만은 않은
 용기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생명학과 부추함이 있더라
 도 비겁한 세련과 인일한 완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신의 가멸함
 으로 그 자주권과 자율권을 고수해왔음을 뜨겁게 각인할 수 있
 게 된다. 더욱이 사회언론이 자기검열에 안주해 있는 타성의 모
 습에 대비해보건대 대학신문이 지향해 나가는 바의 열정은 대학
 과 사회의 동맥경화를 해소시켜주는 그 역능으로하여 돋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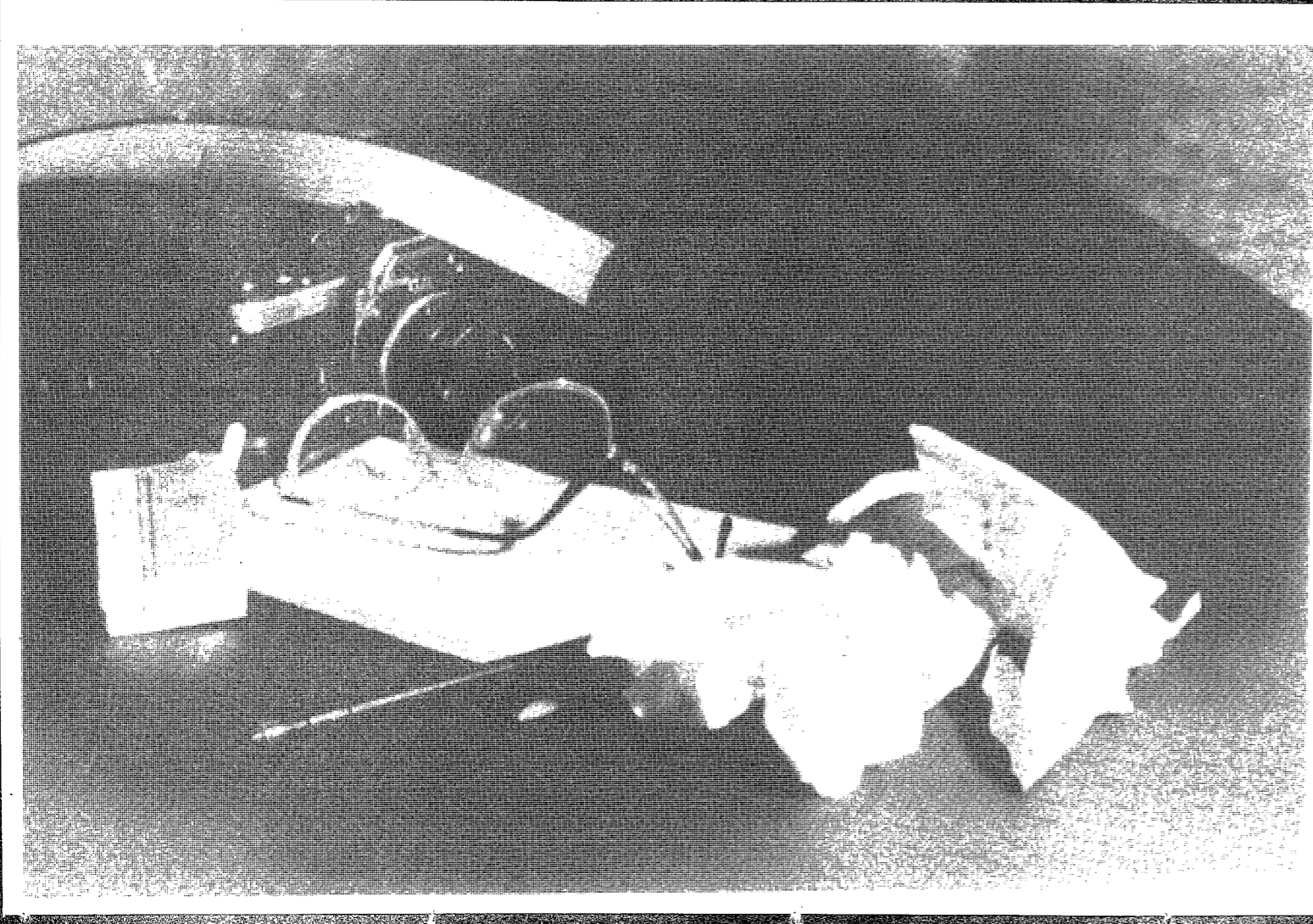
근자에 현안으로 다가오는 문제요인을 통해 대학신문의 위상
 에 대해 살펴보자. 첫번째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상태
 를 주문하는 일이다. 과연 이 둘의 산술적 복합이 가능한가 생
 각해볼 일이다. 어디까지나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화학적 반
 응에 의해 형성되는 제삼의 언론의 모습을 떠올려본다면, 그것은
 저널리즘이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이 결코 전
 문적인 학술자체를 그 내용으로 담기보다는 보편적 정보로서의
 학술적 내용이 기사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실제로 대학에서 생
 산·유용돼야 할 학문적 결과물을 유포하는데 제공되는 지면은
 전문적 학술지로 충분하다. 대학신문은 오히려 그러한 작업결과
 에 대한 비판적 소개와 새로운 학문적 방향성을 유도해내는 촉
 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로, 대학신문은 '대학'이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견주어본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인 것이다. 대학은 사회와
 유리된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로서의 정보는 필경 사회와 맺줄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회의 전체성과 현실적 안일성에 역동적인 활력의
 자극을 부가해야 할 소임을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학인이
 만드는 신문이기때문에 비전문적인 기량과 안목에 대한 편향적
 시선과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기성언론과 다른 실형적
 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와 대학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신선함이 있을 것이다. 비록 사회언론에 익숙해진 입맛에는 맞
 지 않더라도, 그러한 생명력 때문에 대학신문은 더 읽을만한 것이
 며 또 읽이주어야 할 인쇄심과 아량이 필요로 되는 것이다.

셋째로는, 대학신문이 '학교'신문이어야 하느냐 '학생'신문이어
 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무의미한 소모전과 신경전이 벌어
 지고 있는 점이다. 총체, 대학의 홍보매체로서 탁월한 봉사임무
 를 수행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계시권이나
 안내홍보부의 역할에 머물수 없는 일이다. 대학의 모든 정보는
 투명한 유리상자 속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움직임 그 자체가 되
 어야 하므로 대학신문은 여전히 전체나 유보없이 접근하여 취재
 하고 지면화해야할 명분을 가진다. 그리고 신문이 제공되는 주
 요한 대상은 바로 학생들이므로 소위 고객제일주의를 벌여 말한
 다면 대학신문은 학생들의 노작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
 생신문으로서의 입장이 강화될수 밖에 없다.

새삼 대학신문의 새로운 위상 설정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
 야 할 과제인 것 같다. 그렇긴해도 앞서 대학신문을 책임지고 있
 는 대학언론인들은 책임과 의무를 담보로 한 권리의 행사가 신
 중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사회와 대학의 병폐나 선정적으로 폭
 로하고 공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준엄한 자기비판의 행위
 로서, 또 자기자유의 대안모색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도덕성과 성실성 위에 대학신문은 자리매김이 비로되기
 때문이다.

창간 42주년 기념



정론직필로 어둠을 밝혀 오늘까지

쓰던 원고를 구기는 마음은 어떨까

월요일 오후5시
 최중기사마감
 싸늘한 사내 분위기는
 귀신도 무서워할 것 같다.

140자 원고지
 1, 2매를 쓰기 위해
 기자들의 자리엔
 구겨진 원고지와
 허연 담배연기가 쌓인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오직 진실로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기자들의 월요일 밤은
 그렇게 무섭도록
 원고지를 찢고 구기고 했다.

그리고
 42년이 지났다.

東大新聞社

우리의 각성이 깨끗한 동악을 만들어

휴지줍는 작은 실천이 동악 자주화의 시작

민중사학이라고 자인하는 동악이 언제부터인가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모습을 띠고 있다. 어느 사퇴든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든 간에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결상 태이다. 눈에 보기에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좋은 선입관을 갖고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함은 외부사람들로부터 좋은 동악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것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매주 청소하기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인 양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들어 그러한 모습들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가 동악의 발전과 자주화를 외치고 재단과 학교측에 우리의 요구안을 주장하면서 세워온 것은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함이며, 재단, 학교와 함께하여 동악을 발전시키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가? 학생으로서, 아니 동악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해 왔는가? 아마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변을 둘러 보면 자명해진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꽂이, 휴지, 심지어는 술병까지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동악의 주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때 조그맣게나마 학교측에서 휴지줍는 새것으로 교체한 것은 그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제부터라도 학생회 차원에서부터 청소를 하는 등 각 단계 주된 것은 그 단계 학생회를 중심으로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학생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동악의 현모습이 바로 우리자신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동악의 발전도 바로 우리의 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동악을 사랑하는 이라면 결코 동악이 쓰레기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악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동악의 모습과 함께 우리들도 변모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채진수 <경상대 무역학과>

올바른 대학문화 주도는 지성인의 의무

잘못된 성건동 술문화부터 변화돼야

성건동의 밤은 자칫 무법지대로 전락할 것만 같다. 어두워진 성건동의 밤거리에서 술에 취한 학우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학교주변에서 이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시 되어진 것이지만 좀더 자세한 학우들의 행동들을 살펴보자.

거리에 대자로 누워 고래고래 소리치고, 귀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서로 주먹질을 해대며, 남의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실례(?)를 하는 등, 여학우들은 감히 마을놓고 다닐 수 없게 하고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대학인의 꿈과 낭만과 패기에 찬 모습인가?

술이 짙은 시절 한때의 좌절·패배·실망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생활의 윤택유가가 되며, 모든 일에 재도전 하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했을 때 우리가 쉽게 행하는 모습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내일의 희망을 씩씩게 만든다.

술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즉, 폭음, 필드포 웨라는 식의 잘못된 사고는 이제 고쳐야 한다. 교통·고난·고민들을 술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왜? 우리는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이기 때문이다.

사회속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술문화를 지금 이곳 성건동에서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진정 우리들이 꿈과 낭만을 가진 지성인이라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올바른 대학문화주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태성 <인문대 국문과>

일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발송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의는 260-3491.

자가용등교 언제쯤 근절될건가

통제불구 질주할때 야속해

'외부차량통제'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면 눈에 띄는 여섯 글자로 된 팻말 하나가 내야라이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이 일을 맡은 지 한 달도 안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동악인들에게 소개할까 한다.

사실 난 동문 선배의 권고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경제적 문제의 상당부분 해결과 더불어 젊음을 고생으로 매도도록 노력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크나큰 동기가 되어준 것 같다.

타 대학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은 부지에 좁은 주차 공간이다 보니 일대일 동대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떠올리기를 수 없다. 정말이 좁은 공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자동차들이 정문을 향해 질주해온다. 이런 차들중 학교 마크가 부착되었거나 출입증이 있으면 들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시켜 교내 출입의 경위를 충분히 들은 후 확인을 하

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인 것이다. 처음엔 쉽고 가벼운 일인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효율수록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꽤일까. 마크 없는 학생 차량을 정지시키려다 급하게 엑셀페터를 밟는 바람에 타 쏘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경우라든지, 교내 출입 경위를 파악하려 할 때 통째로 넘어진 경우로 대담하는 경우 때 문이 아닐까.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이든 보람을 종종 느끼기도 한다. 앞머리가 없기에 스님인 줄 알고 합장을 했더니 조금 난 뒷머리 카락을 보여 주시며 난 아니라고 일말을 불하시던 어느 교수님, 용토수를 사다주며 수고한다고 격려 해주던 어느 대학원생.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면 바로 이런 사소한 동대인의 배려가 아닌가 한다. 이광영 <경상대 회계학과>

초대시

봄 정우식 <문과대 철학과>

이라 저라 이라 워, 워 황소는 거친 곳길 썩씩 내뿜고 아지랑이 아득히 피어오르네 농부들은 쟁기로 밭을 갈았고 아낙들은 고맙따다 씨를 뿌리네

가시내야 청보리 물결 흥얼이는 암기슴 풀이라 비 온 아침 발치엔 호백진 자궁을 열이라

애 하나 놓자 애 하나 놓자

경주교내 쾌적한 환경 정비 필요

며칠전부터 불비라는 이름으로 연일 흉년이 내렸다. 오랫동안 오는 비라 그런지 겨우내 쌓인 내 마음의 묵은 먼지까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개운한 기분과는 달리 교내의 비로 인해 구석구석이 물구멍이던데, 비만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이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배수가 특히 안되는 곳으로는 자연과학관 공사 진행중인 백상당 원호관 중정의 계단 밑부분, 그리고 교문앞 이렇게 세군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백상당은 자연과학관 공사로 인한 여러가지 제거기들이 흙탕물에서 뒤덮여이 된채, 맑은 날에도 항상 흥건한 젖어있는 상태이다. 기특이 나 공사로 인해 차량출입이 잦은 이곳은 바퀴자국이 두껍, 세검 난채, 먼지와 황토로 폐허를 연상케 한다.

다음으로 원호관 중정은 수업이 많은 관계로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비가 오면, 넓이뛰기 선수, 혹은 우수에 젖은 청춘이 되어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이 지나다니는 버스·택시들에 의해 물세례를 받는 교통안, 이제 더이상 비에 젖은 남자·여자가 멋있는 시대는 아니다. 빗물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구멍이 더욱 큰 육소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하는 호탕한 기분도 잠시, 물구멍이 애 빠졌을 때의 그 비참한 기분, 아마 이는 아닐 것이다.

이에 도대체 학교에서는 무얼하는지, 진정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아무리 고인 물도 흘러가야 마련이지만, 흘러가지 않는 물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이 햇볕에 증발할때까지 서서 있기만 하려는 것인가.

학교는 한시바빠 배수로 공사를 해 학우들의 발과 옷과 기분이 물에 젖지않게, 쾌적한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해주었으면 한다. 따리서 작년 여름, 홍수때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이상 소원고 의 양간 고치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박상만 <상경대 경영학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양천구 목동11단지내에 위치한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부설 특별학급인 3학년5반의 담임교사 이승철(국어교육4)군.

앞으로 생활하게될 교육현장의 실체와 접촉하며 보다 다양한 교육의 방식들을 경험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약 1개월간 오는 5월2일까지 진행된, 사범대생 및 일반 교직원정신수자 4백66명의 교육실습수 중 한 사람이다.

현재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본교생 10명, 경기대생 1명등 모두 11명의 실습생이 실습을 나와있는데 남자는 5명, 여자는 6명이다.

이군이 이곳 학생들의 산업체특별학급이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실습을 시작했으나 차츰 그러한 부담감이 아슬아슬한 교사로로서의 사명감과 막연한 고민,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교육에 대한 자신의 틀들을 잡지 못한다는 기 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어제(14일) 첫 수업을 진행했었다는 그는 지금 실습학교가 실업교육이라는 특색과 교사의 임무와 교육보다는 생활지도면에서 더욱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또 일반교사들도 인간적인 전인 교육에 더 많은 배려를 하고있는 점들이 인상깊게 받아 들였다고 한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끝까지 교직을 고수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항상 학생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내뿜어주는 자기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수있는 선생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조용수 기자)

이승철 군

(사범대 국어교육과)

東國漫評

박성민

사범대생 진상여부
오리발 탄수
답변 이라도.....

목역골

- 축하합니다
- 반교과와 연극소모임 '수레'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연극을 죽도록 사랑하는 91
- 인간이행(무역89) 생일을 축하해요. 따뜻한 날에 축복도 전혀 못받고...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 손오공과 찌찌가
- 세상이, 하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 현길! 주철이두
- 교준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 光
- 현여울 16기 여러분의 입담(?)을 축하합니다.
- 휴가자라. 14기. 신
- 봉계구름 92학년 합격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 창단선배들
- 동그라미 신인전을 무사히 마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22기, 현진
- 공과 '92해영아, 동환아, 호빈아 생일 축하한다.
- 컴공과 학우들
- 종혁이형! 생일 진짜진짜 축하해요.
- 백상16기 보컬·액션팀
-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 단결원 1학년의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①4.11-첫기 ②4.12-기동 ③4.19-대원 ④4.20-해동 <동악인이며/ 축하해줘요>
- 일문과 1학년 일동
- 세상이 영아!
- 기쁜날 행복하단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날이 되길...
- DUCA 9기 일동

- 7일은 민족사연구회 총무님인 수정이의 생일입니다.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우리들도 축하해줄거예요. -민,서91
- 제원아! 너의 스무번째 탄신일을 온몸으로 축하한다. -인국, 삼욱, 정길
- 알립니다
- 동·생과 소모임인 금강초등학교는 대동계대 전시회를 위한 식물전시관 시설표본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동악인 전체
- 대상: 5월10일까지
- 민중문학의 한술밥. 동국문학회 친구들! 4월17~19일 3일동안 문학회 전체모임을 대상으로 가게되었습니다. 92세대의 환한 웃음속에서, 86도현영의 정그러온 미소속에서, 우리 한민 신나게 놀아봅시다.
- 회장 및 집행원
- 관/ 원주향우회(대상, 원고, 육고, 월여, 진평, 상지, 복원) 4월16일(목) 5시 다함원2층 92, 91를 꼭 참석 바랍니다.
- 향우회장 87신
- 제원(사학과87)이가 결혼하답니다.
- 일시: 4월19일(일)
- 장소: 동국대윤석당(강남영동병원 근처)
- PS 참석하지 않는 동생들은~ "林處"
- 수고하셨습니다
- 식목일날 행사에 참가해 주신 5백여 동대 학우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말씀과 박느라 수고하신 최88 경남이형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 7일부터 10일까지의 전대원총회를 시수하느라 추위와 기아속에서 사셨던 모든 동지들에게 수고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 오월를 격려
- 그리고...
- 경상대 학생회장님!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돼요! 힘내세요.
- 7기선배들(휴가나온놈들)

동악! 광장

- 4월18일 AM10시 교육서비스리얼에서 모여 22세기에 꿈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가자! 회비는 5천원(백지수표는 별도)
- 알립니다
- 학우들의 푸른 잔디위에서 전통혼례를 올리실 분을 찾습니다. 혼례날은 5월14일(목)인데 4월23일(목)까지 KUSA 경(7429)에 연락하십시오.
- 실제 결혼식만 받습니다.
- ROTARACT 임시집회/ 안건은 동아리 체육대회, 4월 15일 5시 동아리방으로 오세요.
- 그리고...
- 17~19일 단결조정 2년 M.T간다. 모두 모여!
- 영민, 영범, 사랑하는 내동상들아. 우짜든 1년동안 우리 잘 개져보자. 영광의 고지가 얼마 남지않았다.
- 4.19학명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자주민주 통일진군 48년 4월16일 늦은6시 A301에서
- 민중문제연구모임 겨울사랑
- 회석과 때론은 미식의 필통을 찾습니다. 내용이 본인에게 매우 소중한오니 습득하신 분은 경제학과 2년 편지함에 넣어주시던 감사하겠습니다.
- 필통주인
-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캠퍼스 O.L을 실시합니다. 오는16일 오후 5시 동아리방에서. P.S:단복 꼭 착용.
-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알립니다. 동국카드(DC CARD)를 각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에서도 카드를 제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복익고문

은방골

- 잔인한 4월도 이제 봄기운에 완연히 물려져 가고 따스한 햇살과 봄꽃내음이 생명의 태동을 느끼는 봄입니다.
- 이제 저희 무역학 연구회에서는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5월5일 오전9시 30분에 관해장에서 춘계운동회를 열거자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불기운에 흠뻑 젖어 보시고 인생을 잊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동문회장 김창식 연구실장 조중형 드림
- 4월25일은 눈이 예쁜 해인의 스물두번째 생일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욱
- 잔인한 4월도 이제 봄기운에 완연히 물려져 가고 따스한 햇살과 봄꽃내음이 생명의 태동을 느끼는 봄입니다.
- 이제 저희 무역학 연구회에서는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5월5일 오전9시 30분에 관해장에서 춘계운동회를 열거자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불기운에 흠뻑 젖어 보시고 인생을 잊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동문회장 김창식 연구실장 조중형 드림
- 4월25일은 눈이 예쁜 해인의 스물두번째 생일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욱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동악청소 캠페인 확산(5면)
-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사업으로 승화돼야
- 지난 4월8일자 5면에 '동악 청소 캠페인 확산'은 주인의식속에 생활하고 있는 각성하는 동악인들을 볼 수 있었다.
- 동악 대청소의 날이 유령무실해진 채, 각과 단체차원의 이 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것 같다. 자부문화와 더불어 무감각하게 버려지는 담배꽂이나 칩·휴지들은 우리의 얼굴인 동악교정을 더럽히고 있었다. 이때에 그 기사는 우리를 각성하게했고 내가 바로 동악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케 했다. 각과, 단체차원의 이러한 운동이 그 집단의 질속력을 이
- 한부의 동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수요일부터 기자들은 그렇게 설쳤나 보다. 大東大新聞의 4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정기자 들은 불안하다) 34기 수습기자 일동(한영, 경욱, 태성, 재환)
- 國史學科의 귀염둥이 날오는 돈까스(91·유진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잊지말자! 상기하자! 작년의 그날을!
- 91-전원들
- 오! 교신아!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 일문87선배
- D·K·B·S의 회석, 준석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평가지?
- 日文科 경호 선배님
- 동문회 및 향우회
- 東山 동문여러분 한민 모여봅시다.
- 제40회 졸업생 1人
- 기계·기복 향우회/ 4월16일(木) 늦은5시 A301에서 첫 만남을 가집니다. 회비:여러분을 믿습니다.
- 물산 중앙인들, 4월16일(木) 5시 A301에서 모임이다. 안건은 신입생 환영회, 결산보고, 추수시험입니다. 회비 2천원 지참바람!
- 물산 제일고, 제일고고 모여 주십시오. 4월15일(수) 5시 A309에서 회비없이 모임이다.
- 강릉 명문고 동문회가 4월17일 늦은6시 가교과 대반점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5천원 상의할 일이 있으니 전원 참석바람.
- 경복, 이화 同門여러분! 우리한 번 Membership을 확인해 볼까요? 4월 16일 PM6시 E203, 회비는 필요없음.
- 영남고 동문회를 4월16일 PM5시30분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비는 1만+α

등합합의

재단혁신등 발전적 대화추진

총장 "재단전입금 확충등 적극 노력할 터" 2학기 등록금 16% 인상률 적용하기로

등록금부정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2학기 등록금인상률은 16%로 조정된 가운데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오후 2시 학교·학생대표는 총장실에서 '92학년도 등록금 합의사항'을 양측 모두 채택, 향후 지속적인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통한 학교발전의 공동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92학년도 등록금부정은 학기초부터 학교당국과 학생측의 합의요구인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경 재단이사장실, 사무처장실, 재단 사무처실, 총장실 등 여러곳의 집기를 본관 앞으로 끌어내고 폐쇄조치 시키는 등 학교당국과 재단의 심각한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부정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등부와 재단혁신에 대한 학생대중들의 참가 열의가 지조해 지자 총학생회와 등부정리를 통해 4.5월 때

를 마련 △교과과정 개편시 학생참여 보장 △강의 평가제는 학교·학생 공동 연구숙에서 계획·실시 △강의계획서를 92년 2학기부터 사전제출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서울·경주캠퍼스의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발전에 대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합의했다.

총대의원회 출범식 및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 못해

지24대 총대의원회(의장=김성원·정의4) 출범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9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으나 전체 대의원 2백2명중 7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아 과반수 출석 미달로 안건 의결은 무산됐다.

이날 1부 순서로 마련된 출범식에선 의장단과 집행부 소개, 대의원회 사업소개가 있던 뒤 대의원회 강화를 골자로 한 출범식연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의 부족(과반수 출석=1/3출석)을 비롯한 총학생회 개칭 등 7건의 의결을 거처야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날 1부 순서로 마련된 출범식에선 의장단과 집행부 소개, 대의원회 사업소개가 있던 뒤 대의원회 강화를 골자로 한 출범식연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의 부족(과반수 출석=1/3출석)을 비롯한 총학생회 개칭 등 7건의 의결을 거처야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의 부족(과반수 출석=1/3출석)을 비롯한 총학생회 개칭 등 7건의 의결을 거처야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한편 2일 실시한 세미나는 이경민(국가고시학원 대구지사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차량손해사정인'과 '법무사' 자격시험에 관해 실시했으며, 3일 오전 11시부터는 '산업안전기사'(강사=이종찬), 오후 2시에는 '판사'(강사=이일성)에 관한 세미나를 같은 장소에서 가졌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학문연주회 문화예술 교실 오는 16일 민중가요 초청공연

본교 학내문화예술학생연합이 주관하는 '일반 동악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실'의 두번째 행사로 소설가 정도상씨의 강연회가 지난 8일 학림관(소강당)에서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연회를 통해 자신의 문헌세계에 대한 강연과 문헌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을 가졌다. 한편 오는 16일 민중가요에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分別心)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분별심이란 마음 속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 혹은 예쁘거나 못하다는 생각 등 일체의 상대적인 구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관념들로 말미암아 갈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인격자는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좋게 보거나 예쁘게 보는 것도 편견이고, 더 나이가 가서 나쁘게 보거나 밋게 보는 것도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좋다는 감정은 그 이면에 좋지 않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分別心)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분별심이란 마음 속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 혹은 예쁘거나 못하다는 생각 등 일체의 상대적인 구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관념들로 말미암아 갈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인격자는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좋게 보거나 예쁘게 보는 것도 편견이고, 더 나이가 가서 나쁘게 보거나 밋게 보는 것도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좋다는 감정은 그 이면에 좋지 않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分別心)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분별심이란 마음 속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 혹은 예쁘거나 못하다는 생각 등 일체의 상대적인 구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관념들로 말미암아 갈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인격자는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좋게 보거나 예쁘게 보는 것도 편견이고, 더 나이가 가서 나쁘게 보거나 밋게 보는 것도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좋다는 감정은 그 이면에 좋지 않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에 대해서 분별심(分別心)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분별심이란 마음 속으로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 혹은 예쁘거나 못하다는 생각 등 일체의 상대적인 구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관념들로 말미암아 갈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인격자는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좋게 보거나 예쁘게 보는 것도 편견이고, 더 나이가 가서 나쁘게 보거나 밋게 보는 것도 치우친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좋다는 감정은 그 이면에 좋지 않은 것에 비하면

경주 59개 동아리 등록 전문성 발휘위주 개편

경주캠퍼스 동아리연합회(회장=권성훈·경영4)는 지난달 31일까지 동아리 등록 심사를 마쳐 정등록 46개, 가등록 13개 등 총 59개 동아리의 등록을 받았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중장은 "등록금 문제 발생이후 지속적으로 재단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재단전입금 확충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 수익사업체 확보 및 부채정리를 통해 재단전입금의 확충에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for Pohang Iron & Steel Co., Ltd. featuring the slogan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포항제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Our indus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tarts at Pohang Iron & Steel). The ad includes a large image of a steel mill and several circular inset images showing various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s. Text describes the company's growth and commitment to quality.

재벌 우위의 '재벌경제' 예고

재벌과 정권의 관계

한국의 재벌에 관하여 필자는 동국대 60주년 기념심포지움에서 '경제의 근대화와 재벌'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그 후의 연구성과들을 모아 '재벌 경제론'(정음문화사, 1985년)을 발간한 바 있었다. 필자가 이와 같이 재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해 온 이유는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 있어 재벌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그와 같은 예상은 빚가지 않았다. 지난번 실시된 14대 국회의원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의 총수인 정주영씨가 총선 20일 전에 그의 막강한 금력을 바탕으로 갑작스레 만들어진 국민당이 국회의원 31석을 차지하는, 당당한 제3당으로 부상하여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고 더불어, 국회에서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제5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군사독재권력은 한국의 재벌의 후견자로서 그들과 결탁하여 그들을 비대화시키는 데가 큰 권력주변의 인물들이 막대한 사욕을 채우는 한편, 권력의 눈 밖에 난 재벌에 대해서는 '국채 그룹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지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전하고 있었다. 문제의 현대그룹 역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권력과 결탁하여 막대한 재력을 키워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6공화국의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와같은 형세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주영씨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3백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러던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하여, 마치 공룡이 길쭉던 게가 자기 주인을 되돌아 물어뜯는 형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필자가 필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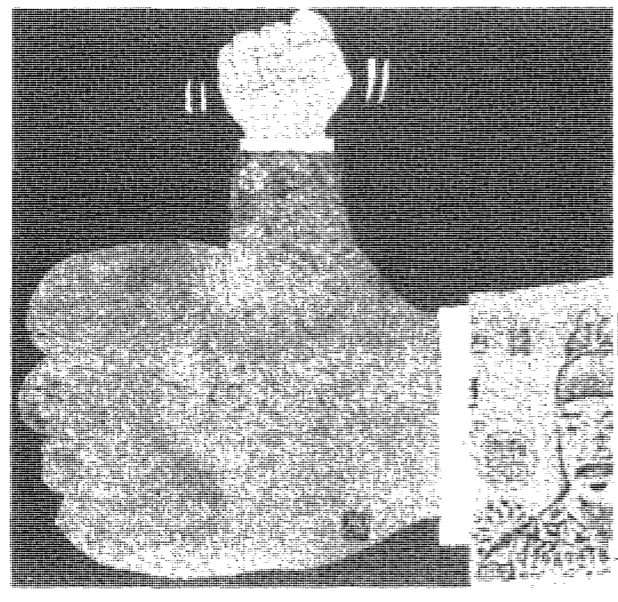
확실히 이번 국회의원의 약진이 이변인 것 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권력과 재벌과의 공생관계와 유착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달라질 수도 없다고 본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권력우위의 관계에서 권력과 재벌과의 힘의 공점(共占)의 관계로 약간의 변화가 일었다는 점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재벌이 우위에 서고 권력이 재벌의 하위에 서게 되는 재벌경제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예과설이 하나의 국면 변화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재벌과 국가권력의 유착에 의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배받게 되는 재벌경제와 정치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실사 정주영씨가 국민당을 배경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의 관세로 보아 그런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한국의 정치·경제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거기서 바뀌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국면의 변화가 국민대중의 눈에 머칠 뿐 변화나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본질적 변화에 의해서만 민생경제의 해결이 가능

의 연합체인데, 그 각 파벌은 제각기 재벌의 금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전후 재벌해체의 파장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에서와 같은 혈족집단에 의한 재벌그룹의 소유와 경영의 동단이라는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의 관세로 보아 그런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한국의 정치·경제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거기서 바뀌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국면의 변화가 국민대중의 눈에 머칠 뿐 변화나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본질적 변화에 의해서만 민생경제의 해결이 가능

후보까지 내세우게 된 오늘의 현실은 크나큰 이변이라고 할만 하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국민당적 독점자본에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이들은 일시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듯 하나, 인젠기는 다시 연합할 수 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국민당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군사문화에 켜진 집단이므로 문민위주의 정치를 갈망하는 소리가 그들보다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문화는 이제 청산될 수 밖에 없는 운명적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당 안의 큰 계기의 하나인 김영삼 대



◆국민당의 들쭉은, 재벌이 위에 서고 권력이 재벌의 하위에 서는 재벌경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진: 시사저널)

언젠가 야합할 운명의 '민자-국민당' 재벌의 권력장악 시도...민생파탄 가속

하다는 사실을 호리하게 하고 적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일시적으로 공헌할 것이라는 점일 것이다.

위와 같은 필자 나름의 판단은 선진 각국의 재벌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에서 얻어진 것이다. 우리의 정치와 경제를 관찰할 때 있어 줄곧 좋은 모형같은 것으로 되어 온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와 재벌사이의 힘의 관계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 크게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화의 초기 단계는 물론, 근대화의 중기(代議政治)의 초창기와 군부독재의 집락전성기, 그리고 '패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아래서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재벌의 관계는 비록 일치라 뒷지락의 현상을 보여 왔지만, 줄곧 권력 우위로부터 점차 재벌 우위로의 변화를 나타내 왔다. 그러한 오랜 변천의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일본 특유의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를 창출해 내고 있다. 필자 '자유민주당'은 여러개의 파벌

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상대적 독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본질이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후진국에 있어서는 재벌이 동시에 정치 지도자 또는 집권자로 등장하였던 역사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현대총수의 대선 도전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의 시대적으로 후진성이 낳은 지극히 한국적인 특수현상이라고 할만 하다.

다른 공업국에서는 이미 구 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린 혈족집단에 의한 재벌그룹의 문이발식 소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재벌총수에 의한 직접적인 권력장악의 시도 등, 한국에서의 일련의 정치·경제적 현상 등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에 뿌리를 둔 국민당이 단시일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3당으로 부상하고, 대통령

표최고위원마저 다음 대통령선거가 군사문화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주영씨와 김영삼씨는 무엇이 다른 말인가. 뿌리가 하나이기엔 언젠가는 야합할 운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민중자본과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민중세력이 너무나 약해져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민중세력이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면, 정주영씨와 김영삼씨는 쉽게 하나로 뭉쳐 이에 대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물론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곡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본질에 관한 냉철한 분석과 인식을 재확인 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 중 환
(농업경제학과 교수·농업 경제학)

92 여소야대의 정국의 실상

14대 총선의 결과는 소위 '여소야대' 정국으로 문을 열었다. 흔히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이번 선거는 "3당야합에 대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었다"고나, 혹은 "민주당의 패배이자 야당을 포함한 민주진영의 승리였다"고도 말한다. 3당합당 당시 2백21석을 보유하고 있던 민주당이 과반수에 못미친, 그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의 패배는 자명하다. 그러나 이렇듯 민주당의 패배가 자명하다고 해서 과연 민주진영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형식은 이상으로, 대립하는 양진영 사이에서 한쪽의 패배는 다른 한쪽의 승리를 뜻한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대결구도였다. 반면 이번 총선은 민주당 1백40석(전국구포함), 민주당 97석, 국민당 31석, 신정당 1석, 무소속 21석으로, 두드러진 현상은 국민당의 부상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된 대다수 진여 성향의 무소속 인사의 대거당선이라는 예상외의(?) 결과를 낳았다.

이들 '기대야당'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당의 성격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 작년 말 '야권통합'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득표율이나 그 분포를 볼 때 여전히 지역당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민당의 경우, 창당의

관화하다. 이렇듯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는 다양한 성향과 이질성을 가진 집단과 계파가 '여' 아닌 '야'의 태두리에 묶여,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이질적 집단과 각 개인들은 당리당략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리하다 떨어졌다 하면서 향후 정국을 끌어내갈 것임을 쉽게 예상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시기 '여소야대' 정국을 곧바로 민주당 반민주의 대결구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주관과 비약일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의 국민적 심판을 놓고 '민주당의 참패'를 곧 '민주진영의 승리'로 귀결시키는 것은 아전인수적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선 형식적 '여소야대'일 뿐

국민당-무소속, 야성향이라기보다 친여성향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13대 총선 당시 여야의 득표율은 33.96% 대 67.04%였고, 이번 총선의 경우는 38.5% 대 61.5%였다. 양 선거 모두 '여대야소'정국의 면모를 의외로 갖춘 것이다. 그러나 그 구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난 시기의 기대야당은 진여 성향의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민주, 평민 모두 야권 성향을 갖고 있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나름대로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의 3당 통합으로 '여대야소'구도는 8개월이라는 짧은 시기로 막을 내렸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분명 민주 대 반

배경과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당의 성격은 이미 '재벌'으로서의 그것임을 물론이고, 또한 '반민주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 설사 그들이 민주당을 이야기 한다면, 가진 자들을 위한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당의 기반을 확대하고 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적 계책에 불과한 것이다. 즉 그들은 이번 선거공약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규제 철폐의 자유는 주장하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번에 대거 당선된 친여 무소속 인사들 역시 그들의 성향과 이전의 행태를 따를 때, 그들의 행태 또한 명약

의 해석이 따를 것이다. 오히려 현 정국의 경제실정에 따른 민생파탄, 각종 부정부패와 사회혼란 상을 본다면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는 33%가 아니라 단 1%도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진영에 대한 국민의 또하나의 엄중한 경고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총선의 결과로 맺어진 '여소야대'정국을 명실상부한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의 장으로 최대한 끌어내려는 것이 민주진영에게 떨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김정선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동막로

적원노조는 지난 8일 본관 앞에서 이후 있을 6차협상에 앞서 전 조합원의 단결을 다지기 위한 전진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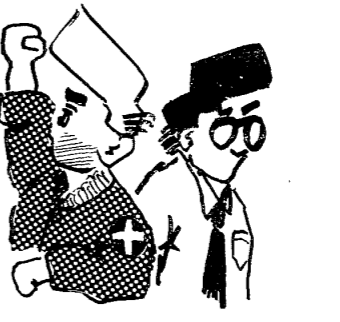
약9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진대회는 그동안 5차교섭의 결과보고, 성명서 채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진대회 후 적원노조 대표 6인은 협상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상중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해 온 5차례의 협상으로 정의방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6차협상이 예상외로 노조측의 양보로 원만히 타결되었다.

"전진대회에서 보듯이 90여명의 참석자 가운데 70여명이 가능적이다. 사무적의 자진 참여 노동자라는 의식이 미비해 참여와 열의가 부족하다.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니 6차협상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밖에요"라며 한

관제자는 사무실에서 앉아 좌잡한 듯 담배를 피우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메인 임금협상때마다 노조측은 사무직보다 기능직에 더 신경을 썼다고 이번에도 임금인



노동자와 인텔리
상용이 기능직은 14%선인데 반해 사무직은 11%이다.
"사무적의 일부 참여가 부족한 것도 상대적으로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돈만들 올리자는 경제적 싸움이 아니라 노조직권과의

결속력을 다져 적원노조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겠다는 의미가 있는 임부가 오히려 기능직과 사무적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식을 같이 하는 노조측은 "앞으로 조합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유구한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라며 이니티브 담배 연기로 자욱한 사무실에서 힘없이 일어선다.

그러나 "내가 무슨 노동자야. 난 인텔리야"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적원노조의 발전은 요원하다.

"민주노조 깃발아래 와서 모여 뭉치자... 단결부쟁 우리의 무기..." 민주노조 철의 노동자의 대목이다.

그렇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조는 노조원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 착잡하기만 하다.

(전미영 기자)

"동국인을 환영합니다" 64년도 법대졸. 장 중 동문

행복을 안겨드리는 레스토랑 - COCO'S

저희 웨일리 레스토랑 COCO'S 를 찾는분의 대부분이 단골 손님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52종이나 되는 다양한 메뉴 - 음식 하나 하나에 그대로 담고있는 독특한 맛 - 특히 손님들의 생일이나 모임을 축하해주는 스페셜 서어비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단란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웨일리 레스토랑 - COCO'S 는 가정에 행복을 드리는 고급 웨일리 레스토랑입니다.

신사1호점 (신사1동) 549-6964, 신사2호점 (신사2동) 549-6965, 신사3호점 (신사3동) 549-6966, 신사4호점 (신사4동) 549-6967, 신사5호점 (신사5동) 549-6968, 신사6호점 (신사6동) 549-6969, 신사7호점 (신사7동) 549-6970, 신사8호점 (신사8동) 549-6971, 신사9호점 (신사9동) 549-6972, 신사10호점 (신사10동) 549-6973, 신사11호점 (신사11동) 549-6974, 신사12호점 (신사12동) 549-6975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내 구성원 12명정원
- 일방적 의사소통
-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 1-4 예시강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 6821-2

全國大學新聞 廣告 專門 0741 11666612

현대 시사어학원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ECC 영어회화과정 신설

정원제·Placement Test 실시·전강사 Native Speaker

개강 5월1일(금) 현재접수중

과교대공영점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6-0509/273-4395~7

첫회 우리 재단의 역사와 성격

민족을 구하자 했던 선각자의 뜻

1906년 동국의 뿌리인 '명진학교'는 민족과 불교의 문명을 계승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불교계 선각자들의 정체를 모아 일으킨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다.

1.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고자 세운 민족학교

1906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있던 시기 불교계의 선각자들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정체를 모아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세우니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국의 뿌리인 '명진학교'이다.

1906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일제의 지배가 확정되어감에 따라 우리 민족과 불교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민족과 불교의 운명을 구하고자 불교계의 선각자 홍원초, 이보담 등은 '조선불교연구회'를 조직하고 민족의 위기를 저지하러 불교중흥으로 타개하고자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재단의 실체는 대한불교 조계종 역대정권의 불교탄압은 동국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나 재정확보 학제정비 등 명진학교 건립에 기여를 했던 불교연구회는 일제의 침략이 강해짐에 따라 점차 친일적인 성격을 띠어 갔다. 이에 불교계는 1908년 전국사찰대표자 회의를 개최, 불교연구회를 해체하고 학교운영을 총무원이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설립된 우리 동국의 뿌리 명진학교는 외세 침략이라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조선사람에 의해, 조국을 위한 순수한 민족대학의 성격을 띠고 세워진 것이다.

2. 일제의 탄압과 항거의 전통

근대적인 불교교육기관이었던 '명진'은 개교이후 학교평이 어려우니 바꿨다. 개교 후 1940년 '해화전'이던까지는 재단과 불교종단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1911년 일제의 사할명 발표로 불교계의 전국사찰이 30만 산제로 강제편성되었다. 1914년 30만산주지회의에서 학교를 '불교고등강숙'으로 개편하고, 운영기관을 매년 2선직권

1953년 2월6일 동국은 국내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64년 12월4일에는 법인의 명칭이 학교법인 '동국학원'으로 바뀌었다.

동국학원은 이후 수십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종합교육기관의 형식적인 틀을 갖춘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비슷한 시기나 나중에 설립된 대학에 비해서도 훨씬 뒤떨어진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발전과 운영의 제1차적인 책임은 설립체인 재단에 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의 실체는 불교조계종이다. 때문에 우리대학 이후의 책임소재는 재단의 실질적 주체인 불교조계종에 있다 하겠다.

학교 종속의 여분이 높았던 1915년 본산주지회의는 '중앙학원'이란 이름으로 4천원을 출자, 운영하였으나 중앙학원의 학생들이 3.1운동에 선구적인 활동을 담당하자 일제로부터 폐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1921년 학생들은 중앙학원을 정식 전문학교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1930년 4월 본교는 '중앙불교전문학교'라는 이름의 정식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이 시기는 특히 한층 우월한 '만명'을 비롯한 항일 비밀결사조직이 학교를 중심으로 불교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1940년 5월 교단에서 학교 명을 '해화전문학교'로 변경하였다. 1941년 한국불교는 강력한 중앙기관인 조계종 중앙총무원을 설립하고 학교법인기구

구를 중단으로부터 독립하여 42년, 4월 18일 재단법인 '조계학원'으로 되었다. 44년에 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폐교되고 말았다.

외세의 지배하에서 민족대학인 '명진'은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학생들의 출구한 항일운동은 일제탄압의 주요 표적이 되어 학교는 민족과 함께 고난의 시기였다. 그러나 민족이 시련에 처한 시기의 고강도 반외세 민족자주화 운동의 자랑스런 전통은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겠다.

3. 민족분단과 불교의 분열로 인한 동국의 쇠퇴 1946년 9월 해화전문학교는 '동국대학'으로 승격되었다. 47년 조계종 교무회의에서 38선 이남 전국 사할림의 2할을 조계학원이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946년 9월 해화전문학교는 '동국대학'으로 승격되었다. 47년 조계종 교무회의에서 38선 이남 전국 사할림의 2할을 조계학원이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글 쓰는 차례

- 1. 우리 재단의 역사와 성격을 바로 알자
2. 재단의 건학이념과 현실
3. 재단을 둘러싼 인력과 문제점
4. 재단의 재정과 수익화 방안
5. 재단의 제도적 문제

국경일로 만들었다. 반면 당시 4백25만명 신도가 그 뜻을 기리는 석가탄신일은 아무 고려가 없었다. (불교는 1975년에, 그것도 오랜 법정스승교야 국경일이 되었다.)

미국의 비호로 들어선 이승만 단독정권과 그 후의 역대 군사정권에 미국의 대불교 억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50년대에 시작, '80'70년대 한국불교사를 일컬어졌던 험준비루-대처 분류는 50년 후반 이승만의 '대처승은 절을 떠나라'는 특별 유시가 그 촉매제

60년대 5-16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천불교를 표방하였으나 '불교계산리법' '공민관리법'등 제반 법적장치로 불교를 정연히 억압시켰다. 5-16 직후 군사정권은 불교 백성옥

창상을 이어가겠다는 이유로 강제 폐지시키고 재단 이사진에 투당과 인연이 없는 외부인을 대거임명하여 학교에 대한 탄압과 간섭을 자행했다. 74년에 중단과 대학당국의 대립을 구실로 재단이사를 전권 관선

이사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동대나 불교와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정권의 사주를 받아 이사가 되어 학교운영을 좌우하게 된다. 관선이사들은 종교 신념에까지 영향을 주어 이상전근과 같은 어용인사가 등장

이 된다. 그러나 한편 정권에 대한 불교의 예속은 뜻있는 불교인들의 각성과 반발을 낳았다. 70년대 후반의 중단분류는 정권이 절박한 호를 불교 주자적인 흐름의 갈등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월주스님으로 대표되는 스님들은 불교의 자주화

를 지향하며 중원을 확보, 개

개시를 문화 - 그 문제와 개선방향

불비가 내린 후엔 '동국대'라는 캠퍼스는 산뜻해보이지는 못한 풍경을 연출한다. 매년 새학기가 되면 동아리, 동문의 선전게시물을 중심으로 학내의 아기자기한 '대자보'풍 수시대를 맞는다. 강의실안 복도바다, 계단마다 붙은 PR 게시물은 새학기 활기를 주기에 충분하다.



캠퍼스의 산뜻함보다 지저분한 풍경을 연출한다.

학생들 관리소홀... 지저분한 학내환경 초래 공간부족 고려 이동게시판 설치 시급

그러나 4월이 되면 학내는 이런 게시물의 추잡한 풍경을 보면서 지저분해진다. 불인 대자보에 대한 학생들의 관리소홀이 자초한 결과이다.

한해 학내 게시물의 문제는, 첫째 매달린 대자보에 대한 학생들의 관리소홀, 둘째 게시판의 공간을 무분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 셋째 불-본노나 스티커를 사용해 게시물의 수명을 단축시켜(?)으로 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매달린 게시물의 관리사비·코기리상까지 붙이는 게시물의 범람으로 게시물은 이미 신속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단절시키고 시각장애의 주요인요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내가 너무 좁고 특히 게시판이 워낙 많아 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4. 개교 100년을 앞둔 민족대학 동국의 과제

이렇듯 미·일 외세의 침략과 그 결과인 민족분단, 그리고 불교의 억압과 분열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민족대학인 동국의 침체는 바로 이러한 민족적 위기의 불교의 탄압,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으로 학내를 책임지려는 무리 수이다.

이제 학교·학생 모두 게시물을 문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게시물의 분산과 집중이다. 학내 게시판이 많다는게 학교관의 예기지만 공대내, 교수회관 앞 등 이용률이 저조한 게시판 또한 많다.

다음은 게시물의 수와 규격의 제한이다. 대자보용지에서 4월경까지 그 규격이 다양한 형태로서는 큰장만을 사용하려는 게 학생들의 심리다. 등문 회개, 단대행사 등 선전내용에 따른 용지규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학내 붙일 수 있는 게시물의 수제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게시물의 시효다. 일부에서는 대자보에 'X'인까지 유효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후 처리의 문제소지를 없애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게시물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단대·총학생회에서 붙이는 '정치적 입장'의 대자보는 보통 5장이 넘어 게시물의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대자보가 시효성을 잃었다 해도 다른 게시물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세대자보에 대한 미묘한 문제와 오히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세대자보만이라도 대자보에 그 시효를 표시하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행동일지 모르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게시물관리의 정작을 위한 장치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용지물이 된 게시판을 철거하고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사, 보다 실용성 있는 게시판의 설치로 해야 하며 공간부족을 감안해 등락로 팔경에도 게시물을 붙일 수 있는 이동게시판의 설치

또 학내 환경개선을 위한 철저한 규제도 필요하다. 숙대의 경우 게시판이외의 게시물은 강제로 떼는 것이 학교방침이다. 학생들의 형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학회가 깨끗하다는 평을 학생 스스로 내릴 정도다.

그러나 학교당국의 게시판 설치나 규제가 앞서 학생 스스로 붙이고 떼기까지의 책임은 철저히 한다면 일련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없을지 모르다.

(이병민 기자)

인사이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지난 1948년에 만들어져 46년간 민족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유린해 온 반민주적 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식이 지난 11일 본교 맨해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투쟁본부 총무부장 양승규씨를 만나 결성배경과 이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물어 보았다.

▲결성배경은 = 지난해 9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올 해 남북 협상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환경에서 남북통일의 장에 걸림이 된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공동투쟁체 건설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양심수는 = 5공 7년간의 양심수가 4천



양승규 (총무부장)

완전 철폐 위해 노력할 터

냉전의 산물일 뿐 존재기반 이미 상실

7백여명이고 6공 4년간의 양심수가 5천4백70여명에 달하며 아직도 감옥에는 9백60여명의 양심수가 있습니다. 그중 47%인 4백55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이며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이상을 복역한 초장기수도 33명이나 됩니다.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 먼저 일남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대중투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은 국가보안법 개폐 공청회, 대국민 홍보 자료집 및 분부 소식지 발간, 국외와 평화시위등이나 그대째 상황에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투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 국가보안법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표이후 그 범

적 존재기반을 상실했음에도 현 지배정권은 여전히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통일문제를 전권인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실상 국보법 철폐투쟁을 이후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이나 우리는 대중을 기반으로 일부 개정이 아닌 완전 철폐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전미영 기자)

91년 결산서 공개

(91년 3월~92년 2월)

자판기 (단위: 원)

Table with 5 columns: 월, 매출액, 재료비, 일반관리비, 영입이익. Rows for months 3 through 12, and a total row.

다량관 식당 (단위: 원)

Table with 5 columns: 월, 매출액, 매입액, 일반관리비, 수입-비용. Rows for months 3 through 12, and a total row.

보리수 매점 (단위: 원)

Table with 5 columns: 월, 매출액, 재료비, 일반관리비, 월 손익. Rows for months 8 through 12, and a total row.

※3월~7월까지 사업정비단계 집계생략
영업외수익 1,188,153
영업외비용 86,990
제고 약 4,000,000 기초, 기말상계

다량관 매점 (단위: 원)

Table with 5 columns: 월, 매출액, 재료비, 일반관리비, 월 손익. Rows for months 3월~8월 and 9월~2월, and a total row.

제고 약 4,000,000 기초, 기말상계
영업외수익 500,137
영업외비용 276,003
자세한 내용은 다량관 증빙세서에 공개할 예정.
※괄호 ()는 적자 표시

92 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지원자격: 4년제 대학
1학년(70. 1. 1 ~ '76. 1. 1 출생자)
2학년('69. 1. 1 ~ '75. 1. 1 출생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2. 4. 1 ~ 5. 20(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Table with 2 columns: 1차(지원서) and 2차(신체검정). Rows for documents like application form, health certificate, etc.

- 선발절차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 신체검정
합격자 발표: '92. 8. 26
특전
학군후보생 지원서 「가」부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동국대학교 학생복지 위원회

육군본부



4.19를 찍은 사진가들

민중의 역사를 남긴 기록자 김주열 열사 사진...4.19 촉발계기

역사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기록 그 자체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때가 종종 있다. 4.19의 김주열군 사진이나, 6월항쟁 때의 이현열군의 사진 등이 그런 예이다. 월남전의 사진도 반전 무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아가 눈에 최후반기 박한 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군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3.15 부정선거 항의시위는 한 남쪽 도시에서 일어난 하나의 시위정도로 그쳤을지도 모른다. 또한 6월 항쟁 때 이현열군이 최후반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공개되지 않았다면 6월 항쟁은 또 하나의 연례행사로 치루는 시위사태로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다행이 아니라고는 차라리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러한 희생을 기록이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짙은 수필에서 그나마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4.19는 우리나라의 사진가들이 처음으로 이방에서 벌어진 일을 본격적으로 기록한 사진이었을 것이다. 그것에도 6.25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이때는 주로 외신기자들의 활약이 있었고, 한국인 사진가로는 이경모와 성두경이 활동하여 훌륭한 사진을 찍었지만 한국인 사진가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그만큼 1950년대에는 현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근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근대로 들어서는 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갖추지 못한 사회는 그만큼 자신의 역사적 본질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역사의 본질을 둘러싼 어둠을 내뿜어버리기 위해서는 명징한 기록이 필요하다. 6.25는 아직은 우리 스스로의 명징한 기록이 부족한 상태였고, 사진가들은 4.19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4.19를 우리에게 알린 대표적인 사진가들은 이명동, 김진철, 임용식 등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 사진부 소속이었던 이명동은 경부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하는 장면을, 종로에서 정치 강연회가 열리며 코대생들을 부자비하게 폭행한

장면을 위협을 무릅쓰고 사진으로 기록하여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한 AP통신 서울지국 특파원으로 있던 김진철은 4.19를 진후한 사회적 정황과 생생한 시위장면을 AP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로 알렸으며, 4.19를 전세계의 관심거리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사실 AP통신이 전세계의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다. 우리는 AP통신의 막스 테스포라는 사진가의 이름을 몰라도 그가 찍었던 6.25 때 쓰러진 대동상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들—그중에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의 모습이 담긴 눈물겨운 사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AP는 전세계의 사진 현장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력과 물량으로 취재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진철의 사진은 대개 의신을 통해 나가버렸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만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야말로 4.19를 하나의 전세계적인 사건으로 만든 중요한 인물이다.

또한 임용식은 보도사진가라고 보다는 예술사진가의 입장이었지만 당시 한국 사진계에 새로운 중요한 사조로 등장하던 생활주의 리얼리즘의 정신에 따라 사진이 현실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삶을 기록해야한다는 정신으로 4.19를 기록함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냈다. 물론 이외에도 출처와 찍은이가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진들이 지난 나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4.19정신을 말하지만 나는 4.19 '정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했고, 그때 채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오늘을 우리에게 4.19를 살아 있는 것으로만 만드는 것이다. 4.19를 찍은 사진이 '살아 있는 기록'으로서 남아 있는 것도 4.19가 역사책의 한페이지가 아닌, 오늘의 삶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진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 있는 진실에 언제나 다스림 거내보여 준다. 그것도 명징하게.

이영준 (사진평론가)

“4.19는 꺾일 수 없는 시대의 양심이다”

특집 4.19세대—그 기개와 변절

4.19혁명의 해석의 뜻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4.19혁명은 시대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추구되고 있다. 오늘에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4.19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이제 4.19혁명은 글자 그대로 32년전 있었던 하나의 역사이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지닌 의미는 갑오농민전쟁(1894)이 근세의 민중운동으로의 봉화였고 3.1운동이 일제의 반제·항일 민족운동으로서, 최대의 민중운동으로서의 계기가 되었었던 정도로 분단시대의 민족·민주운동으로서 거대한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1945년의 8·15는 남북 분단을 말하고 외압의 예속하의 사이비 민주체제의 6·25(1950)전쟁 폐허위의 억압체제의 고정화의 지속으로 이어졌다. 사실 4.19혁명 이전의 분위기는 조봉암의 처형에서 나타나듯이 반정부나 반이승만의 의의적 기조가 그러한 세력은 '빨갱이'로 낙인찍혀 박해당하는 현실이었다. 제후도의 4·3사태는 고사건에 6·25전쟁과중에 벌어진 거창 양민 학살사건같은 체제측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한마디 말을 못했던 것이다. 제도권 안팎의 이승만 반대 정치운동에서 “못말겠다” 같이보

혁명의 의미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특히 4.19혁명의 주체는 해방후 한글 세대였는데 의미가 있다. 해방후로부터 집권층의 공적 이데올로기와 권력정당화의 근거는 '민주주의'였다. 그것이 '형식적'민주주의이고 사이비 민주주의이고 어떠한 해방후 세대는 글자를 익히면서부터 민주주의를 들어왔다. 비록 그것이 온실속에 최담하게 사육되는 '교실 민주주의'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자체로부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마련되게 되었던 점을 지나쳐 버리는는 안된다. 바로 이것을 '현장의 민주주의'로 실천하기를 요구한 점에서 4.19는 빛나는 역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4.19세대의 선구적 역할—그 부침의 발자취

우리가 세대는 발로서 하나의 집단적 부류를 평가하는 것은 계층이나 계급과 마찬가지로 세대라는 한 시기의 경험, 또는 체험과 사회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전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가 6·25 민족상잔을 몸으로써 체험한 세대가 된 때 그들이 공유하는 체험과 그들의 생활기반에 뿌리를 둔 이해관계는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세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따로 평가할 수



4.19세대의 변절, 그리고 지식인의 슬한 변절의 역사는 4.19의 진실·정치의 정신을 되새기게 한다. (사진은 4.19당시 이승만 하야 소식을 듣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군중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주체가 되는 계급이나 그 전위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특이한 혁명이었다. 4.19의 주체는 분체 계급적이고 개척적 이기까지도 했지만 혁명의 개척적 인 추진의 주체가 되는 세력이 될 수는 없었다기 때문에 정권은 4.19 혁명이 지나 그것이 뜻하는 바가

의 엘리트 층에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4.19를 내세우고 옹호하는 듯이 보이던 기성세대가 많았다는 후배를 보았다. 그런데 일제하에서도 곡필을 거부해 보았던 시인, 지조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시인 조지훈씨가 군사정권의 정변을

4.19세대의 연모는 정치와 문화의 무대를 통해이다. 여기서 정치의 무대에서 그들이 아직도 우리의 관심사 되고 있는 얼굴을 보던 이기택, 이우제, 김상헌, 이세기, 최영우 등을 우선 들이 볼 수 있다. 문화 세계에서는 저항시인 김지하를 비롯해서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이나 산문분야에서 활발하게 뛰는 소설가 박태순을 나로서는 들 수 있다. 이들은 어렸던 4.19세대라고 하는 추상명사로서 상징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4.19혁명이 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의 부침을 좇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많기 때문이며 이들중 변절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에 민중이 임종처럼 질타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애착을 그만큼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지조와 변절을 다시 따지는 이유

우리가 4.19혁명을 말할 때 그 당시의 주역과 그들의 부침을 통한 거취, 그 가운데서도 변절을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는 다시 새겨들여보도록 역사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일제시대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정착은 이를 없애기위해 출세주의, 시세편승주의, 기회주의를 한국의 지배층이나 지식층에게 심어주는 일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미군정에서 친일파 판교나 친일 세력을 영입하고 이승만 정권이 마찬가지로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는 민족정기나 사회기풍을 완전히 타락시켰다. 군사정권 등 역대 독재정권이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 쓰는 정책도 바로 그러한 실패를 이어왔고 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한 명분이야 서든 말든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풍토로 정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식인과 정치인이 쉽게 타락되는 사회 정치적 여건을 조성해 놓았다. 이러한 윤리부재와 가치허무주의의 사회 분위기를 어둡게 한 지 극박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정권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나는 4.19혁명의 정신을 말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진실과 정의를 통해 민족과 민주주의를 되찾아 오라고 한 4.19의 이상을 강조해 가 변절하는 비극을 보게 된다. 4.19의 세대도 나이들 먹고 사회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던 70년대에 '유신쿠데타'의 회오리바람앞에 또 다시 좌절과 변절, 타락과 굴복이 오라고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용사들을 쓰러뜨리장으로 몰아간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진두환정권이 등장하는 1980년 5.17쿠데타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군사정권 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변절과 타락은 4.19 이후 20년이 지나갔을 때에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87년의 6·10 시민항쟁을 통한 지푸란 민권투쟁으로 이어져 오늘 이르는 시기에 당시의 영웅과 용사들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대중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한상범 (법대 법학과교수·법철학)

민중—계급 모순에 도전한 민중정기 지식인의 슬한 변절...제2의 4.19세대 만들뿐

“자”고 하는 정치구호가 반대의 최고 자유였다. 물론 선거운동에서 일부 야당 사람에게 한정되는 제한된 현실속의 자유였지만, 아마도 그것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최대의 정치적 자유였을 것이다.

당시 50년대 상황으로서 지식인들의 숨통을 틔고 있던 것은 장준하가 발행하던 월간잡지 '시상'을 통한 시론과 비평 정도가 최고였다. 대학강단이나 연구실 한구석에서는 마르쿠스 모택동의 문헌의 소치조자 국사범으로 물리고 공산혁명을 바 꾸어 놓았다고 하는데 의 미가 있다. 교실 민주주의를 '현장 민주주의'로 이어야 한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귀결을 진실하게 밀고 나가려고 했고 또 밀고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점 자체에서 그 출발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배후운대로 보여주고 했을 때 평가해 주려고 했다. 그러한 일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런 이연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민족주의와 계급모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고 우리 겨레의 양심의 대면이었다.

그러나 4.19혁명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말하는 정치사건에서 정의하는 혁명이 아니었다. 4.19혁명을 한국관 '부르조아(시민) 혁명'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혁명에서

무엇인지도 몰랐던 보수정객과 당파에 불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일년이 못되어서 5.16군사쿠데타로 가장 4.19혁명정신에 배반되는 세력집단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정권 세력은 4.19의 분위기와 그 문제 제기를 철저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고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과감하고 교활한 세력들이었다. 군사정권을 일으킨 세력은 그들이 조직한 62년 헌법에서 '4.19의기'의 이름을 '5.16혁명(?)'의 이념과 함께 계승한다고 해서 4.19의 범법을 자기것으로 바꾸어 대답하게 가로세우고 그러한 노선에 따라 대중조작을 해나갔다고 했고 또 밀고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점 자체에서 그 출발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배후운대로 보여주고 했을 때 평가해 주려고 했다. 그러한 일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런 이연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민족주의와 계급모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고 우리 겨레의 양심의 대면이었다.

그러나 4.19혁명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말하는 정치사건에서 정의하는 혁명이 아니었다. 4.19혁명을 한국관 '부르조아(시민) 혁명'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혁명에서

무엇인지도 몰랐던 보수정객과 당파에 불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일년이 못되어서 5.16군사쿠데타로 가장 4.19혁명정신에 배반되는 세력집단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정권 세력은 4.19의 분위기와 그 문제 제기를 철저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고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과감하고 교활한 세력들이었다. 군사정권을 일으킨 세력은 그들이 조직한 62년 헌법에서 '4.19의기'의 이름을 '5.16혁명(?)'의 이념과 함께 계승한다고 해서 4.19의 범법을 자기것으로 바꾸어 대답하게 가로세우고 그러한 노선에 따라 대중조작을 해나갔다고 했고 또 밀고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점 자체에서 그 출발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배후운대로 보여주고 했을 때 평가해 주려고 했다. 그러한 일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런 이연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민족주의와 계급모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고 우리 겨레의 양심의 대면이었다.

그러나 4.19혁명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말하는 정치사건에서 정의하는 혁명이 아니었다. 4.19혁명을 한국관 '부르조아(시민) 혁명'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혁명에서

무엇인지도 몰랐던 보수정객과 당파에 불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일년이 못되어서 5.16군사쿠데타로 가장 4.19혁명정신에 배반되는 세력집단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정권 세력은 4.19의 분위기와 그 문제 제기를 철저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고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과감하고 교활한 세력들이었다. 군사정권을 일으킨 세력은 그들이 조직한 62년 헌법에서 '4.19의기'의 이름을 '5.16혁명(?)'의 이념과 함께 계승한다고 해서 4.19의 범법을 자기것으로 바꾸어 대답하게 가로세우고 그러한 노선에 따라 대중조작을 해나갔다고 했고 또 밀고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점 자체에서 그 출발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배후운대로 보여주고 했을 때 평가해 주려고 했다. 그러한 일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런 이연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민족주의와 계급모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고 우리 겨레의 양심의 대면이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대우의 역사(役事)는 끝없이 계속되고
대우의 역사(歷史)는 항상 시작입니다.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고 타 문명세계에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국제시장을 향해 대우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1960년대—
그때 우리는 경쟁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아랍은 타국인들의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내부에 팽배해있는 절망같은 오히려 희망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과 5명의 직원과 자본금 5백만원으로 시작한 대우는 세계는 넓고, 그 세계와 함께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대우의 동력은 타기업의 국제화에도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을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단어를 대우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대우가 창업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에 뜨거운 집념을 보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만이 우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그렇게 할 때 인젠가 대우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날이 있을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는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개발 차원에서 곧바로 해외시장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무역업체가 세운 최초의 해외지사로서 기록되는 대우의 시드니 지사와 싱가포르 지사—

DAEWOO

Ваш лучший партнёр

그곳에 우리는 왜 가는가? 한국경제의 세계화만이 우리기업의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사이드라인 '기밀'이 '시선'을 내딛었던 1960년대의 '대우'인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

이 두 지사는 도전정신과 용수솜직는 끊임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우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만자로 출발한 싱가포르 지사의 차장이었던, (주)대우 운영실 사장은 초창기 대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진사, 말만 들어도 참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지사는 대부분 한 사람이 도맡아서 정신없이 뛰어 다녔지요. 그래서 '고독'이나 '외로움'같은 말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해외개척의 화신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이었고 대우였지요. 우리는 그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았고 '하연' 된다는 신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첫번째 대우의 74번째

동구권 시장개척은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80년대 말 동구의 개방과 개혁의 흐름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언어이 소련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우는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 최초로 동베를린 지사를 개설했습니다. 대우의 74번째 지사인 동베를린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구권 무역지사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사에도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우는 행거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 구 소련의 모스크바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도 지사를 개설하여 명실공히 해외개척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으며, 오늘날 또한 세계를 무런 세계로 만드는 대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대우가 갈 수 없는 땅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럽의 심장 파리과 프랑크푸르트, 아시아 경

제의 상경 북경을 거쳐 과거 '철의 장막'의 관문이었던 허바로프스크에 이르기까지 대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 주는 대우의 84개 해외지사— 전 세계에 펼쳐진 대우의 일터에는 오늘날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냥 놀음이 평평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오지에서 우연히 트럼파 한 대를 목격 했을 때 어떤 감회에 사로 잡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시장을 개척해서 판 차가... 짜임하고 가슴을 찢르지요. 그냥 놀음이 평평 쏟아집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는 대우 자동차 한 대를 쳐다보며 눈물을 평평 쏟아지는 (주)대우 추추적 이사의 말처럼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시장개척의 차원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르쳐준 곳입니다.

한 예로, 리비아는 좌절회교국으로 대우가 진출할 당시 북한공관 이 설치되어 있던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최우무국이었던 촉적된 기술이 없어 해외기업을 통해 건설사업을 해결한다는 기회를 포착, 대우는 적응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무릅쓰고 리비아 건설시장에 본격 상륙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대우가 최초로 수행한 가리우니스의 대학 신축공사를 계기로 호텔, 고속도로, 비행장 등을 수행했고 '80년대에는 트리폴리의 병거지에 1만 3천여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우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그 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1년에는 파키스탄,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국내 총수주액의 38%를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우즈(Azuz) 비행장을 건설할 때에는 정부각료들이 예 고없이 건설현장을 방문, 10여일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기도 해 아프리카 오지에 한국의 의지를 심고 민간건설로서의 몫을

창간 특집 동대신문의 역사, 그리고 92년 대학신문의 방향

독자는 당당한 신문의 주인

대학신문 성격 변화와 현재적 과제

‘읽히는 신문’, ‘독자들과 함께 하는 신문’—이것은 현재 대학신문이 처한 위치와 지향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말들이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행되는 대학신문은 제작중지나 편집자 윤희를 경험했거나 이같은 위협에 처해있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대학신문은 자기위치를 찾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신문의 위상과 이후 진로를 모색한다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변화를 거듭하는 대학신문의 경로를 짚어 보는 데서 유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신문은 대학과 운영을 같이 해 왔다. 1950년대 초 많은 대학들이 세워질 때 동대신문도 창간되었다. 그 후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바뀌면서 대학신문의 모습도 또한 변화해왔다. 흔히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로 일컫어지는 80년대 신문부터 매체혁신

의 문을 제기하게 된다. 학생기자들의 자기만족적 편집관행과 변혁이론론전파의 선도적 위치에서 기인한 대중성결여의 반성을 수행하며 89년부터 ‘매체혁신’이라는 대학신문 혁신운동을 제기하게 된다. 사회적

신문의 앞날을 점칠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신문의 현재 모습을 보며 대학신문의 진보를 우려한다. 실제 9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한언론단체협의회 명칭, 탁성여대등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대학신문이 문제폭발의 소지를 안은 채 신문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다. 제도언론의 왜곡을

변화, 발전의 구체적 방도로서 제시된 대중신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다. 내용면에서는 독자들의 지향과 요구가 어떻게 실현되고 관철될 것인가에 있다. 여론대체부 신설, 독자투고란 설치, 독자모니터제 도입, 상시적인 여론조사 등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독자들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 내는데 대중성추진 우편형이나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 관철화 되려는 조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독자들의 정서를 넘어선 과도한 정치투쟁 내용물이 고인되지 않는 편집으로 지면화될 때 독자를 대량화, 객관화시킬 수 있다.

이와같이 대학신문의 대중성전진은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면이 강하며 대학신문 존재까지 논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을 기자들은 각인해야 할 것이다.

대중신문의 과제로 대중성전진과 함께 이를 조직적으로 특이한 방도가 모색돼야 한다. 즉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 기자들의 작성된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학신문의 성장발전을 위해 대중성에 서야 할 것은 기자이며 기자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선 대학신문사가 이를 뒷받침 해야 되는 관계이다. 더욱이 독자를 신문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기자 자신이 각성되고 신문사가 단련돼 있지 않다면 대학신문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글머리에 밝혔듯 ‘읽히는 신문’, ‘독자들과 함께하는 신문’은 흥미로운 기사, 관성적인 독자와의 접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간42주년을 맞는 동대신문은 또한 그동안 독자들로 부터의 좋은 의견을 토대로 대중성을 전진하며 대중신문창출의 과제를 부담없이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남 철 우
(본사 전 편집장)

87년까지 변혁이론 전파의 선도적 위치 현 과제 독자와 함께하는 대중신문 창출

과 대중신문창출로 이어지는 90년대 신문까지 위상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원칙적인 것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학신문이 대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즉 대학신문은 교수·학생·직원 등 하나 주체들과 동문·학부동맹 대학에 이해관계를 가진 학과주체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신문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사명인 학문탐구와 사회봉사,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기여하는데 일몰해야 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상황만큼이나 그 위상과 역할도 달라져 왔다. 80년대 우리사회의 변화의 총체적 기현의 하나인 87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87년 이전에는 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 선진변혁이론의 전파와 학내정보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해 왔다. 이 시기에는 독자들의 대중적 확보보다는 학생운동의 변혁이론을 일선에서 제언적인 정보제공에서 정보전달—학내소식, 논문소개, 문화정보 등—의 주요 수단으로 대학신문이 위치지켰다. 그러던 것이 87년 6월 학생을 거처면서 대학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된다.

학생운동에 있어서는 소수의 독립적인 투쟁을 반성하며 운동대중화를 모색하게 되고 학내정보제공에 다양화·전문화되어 특수한 자기위치를 갖게 된다. 이같은 대학사회의 변화는 대학신문의 대중성에

신, 조직혁신, 지면혁신으로 일궈져 가는 매체혁신이 지면의 변화에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어 91년 대중신문창출이라는 과제가 제시된다. 대중신문은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대중의 정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대중성으로 신문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상에서 살펴보면 대학신문은 대학의 변화와 유기적인 결합속에서 변화, 발전하며 자기 위치찾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올해로 창간42주년을 맞는 동대신문은 1950년 창간호를 낸 뒤 저명 1천1백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구한 전통만큼이나 동대신문은 대학신문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다. 이는 언론계로 파장적인 표현은 아닐 것이다. 매체혁신과 대중신문창출의 과제는 실제 신문사 운영체계에 도입되고 있으며 신문지면에 구체화 하고 있다. 지난 89년 가로본집, 한글전용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이래 89년 겨울, 매체혁신제, 광고질서회복운동전개, 90년 여론대체부 신설, 91년 격주12면발행제도, 경주판발행등을 이르기까지 대중신문으로서의 자기변신을 서두르고 매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 오거나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자 자질향상, 편집의 비전문성, 편집이이념의 좌우편향, 조직의 민주화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하루가 멀고 기자의 배아픈 자기반성과 결의가 드높은 것을 보면 동대

바로잡고 진실보도를 하고자하는 것을 저해하는 정권의 탄압과 자주적인 학원전진의 목소리를 우려한 학교 당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지경에서 대한언론단체협의회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학문·사상·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우위사회의 모순이 대학신문에 그대로 관철되는 것에 답답하다.

대학신문은 대중신문창출이라는 변화, 발전의 한 지점이었다. 큰 제위기극복의 대안으로가 아니라

◇대학신문 광고의 이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는 이제 하나의 상행이나 기업을 선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 새로운 문명기기의 정보 제공과도 관련이 깊어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데 광고의 헤드라인, 그래픽, 카피 속에는 그 정도가 다름한 ‘가장자’의 논리가 은연되어 나타난다. 특히 외국상표를 내세우는 케주얼의류나 여성용 손으로 ‘모시’ 광고의 헤어샷은 운연중에 우리 가치관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명품은 학살을 사랑한다’ ‘젊음은 유행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광고문언이 그치지 않고 세계를 공진시켜 인식하도록 하는 판별을 이끌어 우리가 크며 더욱이 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은 매우 낮다.

그러면 이러한 광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제도언론과 마찬가지로 아 무런 광고나 무절제한 것은 것이 대학신문의 역할중의 하나일까?

3+□=1.

‘광고도 지면이다’라는 광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광고의 헤드라인이다.

60·70년대 대학신문의 광고는 속속, 생리대에서 3류 의설소설 선전까지 전차만발이었다. 이 당시는 지금과 달리 광고대행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고 자체수주를 하는 대학신문으로서의 광고면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89년 ‘광고질서회복운동’이 전개되면서 ‘광고에 대한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가 등장한다.

2/3+1/3=1. ‘광고도 지면이다’

◇만화연재 처음 시작한 서대원 동문

항상 글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신문에 있어 만화는 단 4컷으로써 날카로운 기지와 재치를 담아 기사의 역할을 충분히 대변한다.

어느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대학신문에서 만화는 이제 정착단계로 거처 유희적 재미를 해내고 있다. 본지도 창간이후 42주년을 맞이까지 고정연재 만화의 역사도 23년째 접어들고 있다.

이에 만화가 대학신문에 고정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발점 역할을 했던 본지의 첫 연재 만화 ‘高基聖’의 필자 서대원(국문 72세·47세)씨를 만나보았다.

“제가 동대신문에 만화를 연재



비평 대상에게조차 감동주는 만화 필요

할때 고대신문에서 연재하던 ‘타이거’를 제외하고는 대학신문에서 만화연재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자인 켈입니다 하며 서서는 첫 말씀을 열었다.

“고기리는 우뚝한 듯한 집적과 솔직 담백, 코감성의 표반인 동국 의 상징 코끼리를 유세하 만든 제목입니다”라며 만화주인공을 설명한 서씨는 지난 69년 군대를 다녀와 1학년때 부학예 본지에 만화연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서씨가 만화를 그리게 된 것은 64년 고교를 졸업하면서 만화에 뜻을 두고 지금의 후임대에 위치한 기성만화가 작업실의 문하생으로 들어가면서부터이다.

“그 시절에 만화가가 젊은 직업이라며 집안에서 반대도 심했고 대학 다니는 사람이 반대하는 직업도 아니라는 주위의 충고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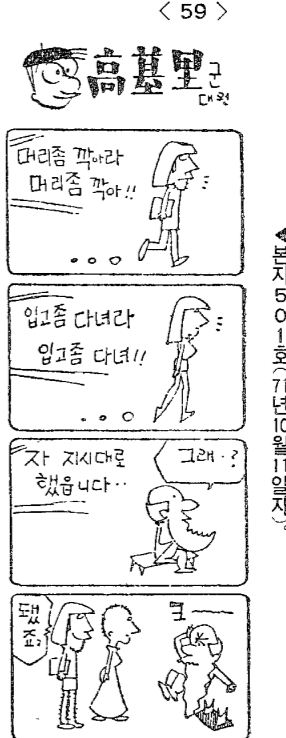
었지만 만화는 내가 원했고 인생의 성공은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만화입문 동기를 밝혔다.

“고기리”도 그의 만화에서 항상 교묘를 쓰고 다니며 단추가 달린 작업복 차림으로 등장한다.

이에 서씨는 “그 당시 코묘쓰기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저는 대학생활 4년동안 끝까지 교묘를 착용하고 까만 교복을 입고 다니며 비껴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만큼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으니까요. ‘高基聖’도 그런 자랑스러운 동국인의 모습으로 형성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강한 애교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서씨는 본지에 처음으로 연재만화를 정착시킨 것 외에 만화필자로서도 최상수 기록을 갖고 있다. 군대를 제대한 1학년말부터 72년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89회동안 연재해 오면서 쥐는 핏대를 풀어 보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이, 고기리 자네 이번엔 누굴 곤란하게 만들거야?’하고 우스개 소리를 전내면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곤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극단적인 비판으로 흘러 거부감이 뒤따라게 합니다”라며 “졸던 고민된 아이들으로 ‘비평하는 대상에게조차 감동을 주는 만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조언한다.

72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평범한 생활을 하던 만화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만화에만 전념해온 서씨는 현재 갖가지 출판물의 삽화와 아동만화집을 발간하고 있다.

서씨는 ‘개미집 엘리베이터’란 만화집에서처럼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청소년들에게 폭력 비디오, 불량만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작품에 대한 작가의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서씨는 이를 위해 저작권 싸움을 출판사와 2년째 벌이고 있다.

만화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외곽 인생을 끌어들여 서대원씨. 사회의 또 다른 부분에서 동국인의 자리를 빛내는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박수호 기자)

을 남기려고 하는가!

특히 해내기로 했습니다.

대우가 이처럼 개척하기 힘든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를 선택한데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민간외교의 침범역할을 해내고자 함이며 나아가 한겨레의 가장 큰 소망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대우가 선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우가 창립 이후 꾸준히 지켜온 ‘공존공영’의 정신 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기업이라 출몰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지 않은 미지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기술의 나라, 일본 입성(入城)

대우의 해외개척사는 미수교국이나 오지의 나라뿐 아니라 선진 세계 각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우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최초로 일본의 최첨단 전자통신분야 연구단지인 소프트 리서치 파크(Soft Research Park)에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만들게 됨으로써 기술보호의 벽이 세계 최고로 높이는 일본에 대우의 기술 잠재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미국 실리콘 밸리와 구 소련의 연구소와 함께 국내의 연구기술과 해외의 정보가 만나는 대우 기술창조의 선진 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캐나다와 호주에 대규모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 각국과의 대등한 경제협력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대우는 현재, 중국의 북부(福州) 방공공 공방 설립, 형기리의 은행 설립, 북한의 남포공단 조성 등 공존공영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43개 투자법인 운영과 더불어 39개의 신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전의 신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해외시장 개척이란 한마디로 시작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나라의 민속, 풍습,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상술이 능한 인도시장 같은 곳을 개척하기란 허탈리아를 정복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요. 인도에서 일한 지 5년, 저는 뜻한 대우와 풍토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생각하곤 했지요. 저보다도 더 열악한 오지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많은 우리 대우가족들의 소명(召命)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요.”라고 지사생활을 얘기하는 (주)대우의 도정원 과장-도과장의 딸처럼 오늘의 대우가 있기까지 지난 44년 대우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대우인들의 땀방울이 얼얼이 스며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북예맨 지사에 근무했던 김승현 대리(현재 대우자동차 부장)도 살아있는 신화를 갖고 있는 한 사람. 김대리는 그 주 민들이 알라에게 예배할 때 씩는 ‘갓’이라는 풀을 신성시한다는 것을 알고 갓들을 제할 잘 씩는 외국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구역을 찾아가며 씩고 또 씩어, 마침내 압둘라라는 거상(巨商)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김대리의 갓 씩는 풀이 예민인을 보다 더 우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예기는 대우의 해외개척사에 쌓여 있는 수많은 일화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난 '89년 파나마 사태 때 살인과 약탈, 총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사의 상품광고를 지키기 위해 총을 채 목숨을 걸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꼬박 버틴 파나마의 대우인들, 무더운 맹벌 아래 일출에 늦지 않으려고 온 몸이 소금기가 허렇게 끼도록 달리는 바람에 아내가 아직도 음식에 소금냄기를 꺼린다는 대우인, 전쟁터를 누비며 낯선 땅을 개척하다가 머나먼 타국에서 스러져간 대우인... 이처럼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면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우인들. 끊임없는 창조적 연구개발로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우리 기술인들. 밤을 밝혀 서투르고 싸들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눈을 부릅뜨는 대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품을 아끼지 않는 ‘도전의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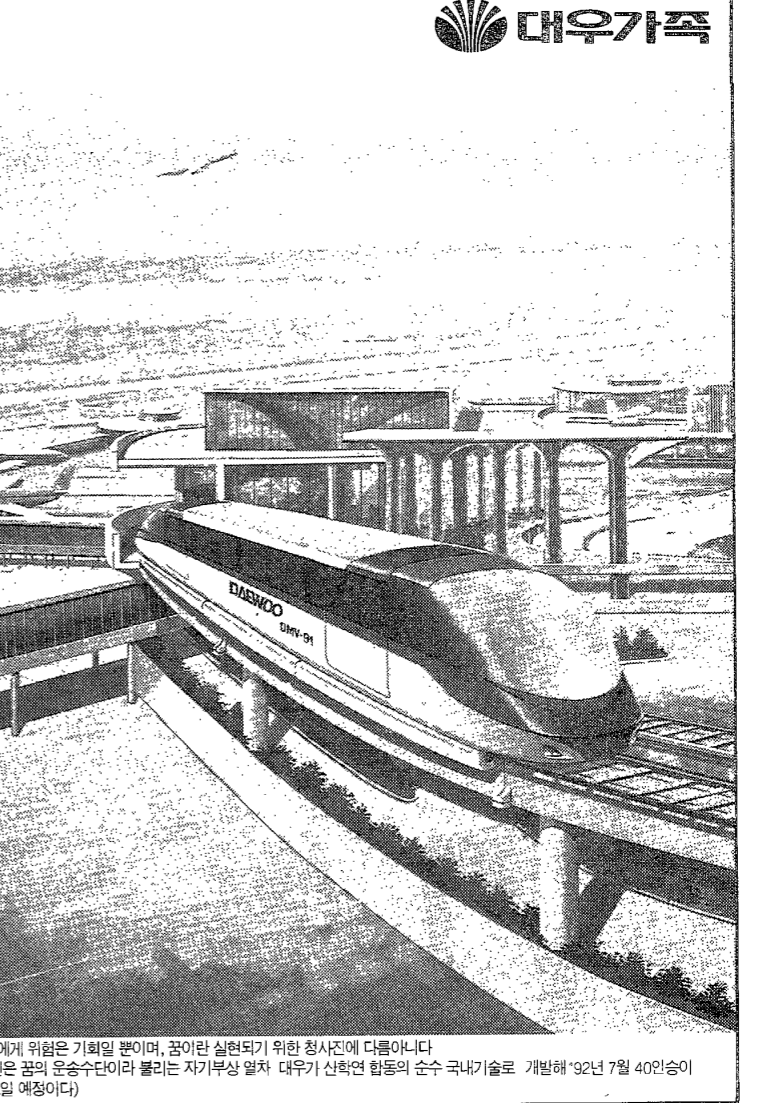
더 큰 기쁨, 더 넓은 기쁨, 더 뜨거운 기쁨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대우가 변함없이 추구해 가고 있는 국제화의 길— 좋은 국토에 머무르지 않고 거대한 국제시장에 도전해온 해외개척의 의지,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미래지향의 행동철학으로 5대형 6대주를 누비는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땅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 도전, 희생의 대우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역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대우의 연변한 정신(精神)이 그것은 바로 더 큰 기쁨, 더 넓은 기쁨, 더 뜨거운 기쁨으로 세계를 안으려는 여러분, 이 땅의 대우인들의 열정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한결같은 젊은 기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우, 여러분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 우리에게 위험은 기회일 뿐이며, 꿈이란 실현되기 위한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사건은 꿈의 운수단이다) 불리는 자기부상 열차 대우가 신화적인 힘으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해 '92년 7월 400승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별대담

“애정과 책임감으로 동대신문— 독자 있는 고리”

창간 42주년을 맞아 본사 여론대체부에서는 모니터대담을 통해 현재 모니터제도 실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편집자>

일시: 4월 12일 오후 1시
장소: 본사 회의실

대담자: 한 진 구 (농과대 모니터·농경과)
이 경 애 (본사 여론대체부장)

▲이경애: 먼저 학생회 사업, 모니터 활동으로 바뀐지 가운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는 동국인과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신문평가, 여론수렴, 기사작성 등의 활동을 하는 모니터제도를 도입해 현재 3기째로 각 단과대학 환경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진구: 먼저 학생회 사업, 모니터 활동으로 바뀐지 가운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는 동국인과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신문평가, 여론수렴, 기사작성 등의 활동을 하는 모니터제도를 도입해 현재 3기째로 각 단과대학 환경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본사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제도를 도입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한: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특히 '열린클러'의 경우 실리는 과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요 이것은 처음에 공개채용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과 선정후 자료집만 나눠준 채 상세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지요.
▲이: 방법상의 문제라 할 수 있겠지요. 본인은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동대신문과 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서 당연히 모니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당위성보다는 '꼭 하고 싶다'라는 적극성으로 나서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진 구

물론 모니터들이 다른 일때

를 써서 독자들이 동대신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대신문이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

고려하고 여론수렴이라 한다면 큰 오류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여론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니터가 중간에서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한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로 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것, 그야말로 소중한 의견이 아닐까요.

▲이: 모니터의 역할이 동대신문의 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지요.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동대신문 창간 42주년에 부쳐

날카로운 펜은 진실 밝히는 무기

축하합니다

‘동대신문’이 창간 42주년을 맞이했다니 감회가 남다르다. 그것은 내가 학생시절은 물론 졸업후에도 10여년 가까이 신문제작에 참여했다는 애정도 있지만, 하나의 생명체가 무수한 고난을 감수해낸 자부심을

며, 대학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동대신문만이 지닐 수 있는 특색있는 지면을 창출해야 한다.
인간지를 보고서 “그 신문이 그 신문이다”라고 평가하듯이 오늘날의 대학신문 또한 그러한 불명예를 뜻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대학은 ‘한국 불교=한국학’이란 측면에서의 전승과 개발만 해도 좋은

새로운 위상과 역할 모색할 때

전동국인의 것으로 자리매김하길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대사가 혼돈과 절망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대학사가 그랬고, 동대신문이 걸어온 길 역시 순탄치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진흥속에서 고귀한 연꽃을 피워내듯이 환경이 척박하면 적박할수록 더욱 날카로운 펜으로 진실을 꼭 밝히고 말겠다는 고귀한 정신이 오늘도 토대가 되었음을 유의하고자 한다.

소래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는 학교당국이나 취재원들이 다 함께 성숙된 언론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들의 손에 의해 제작된다고 해서 신문을 ‘설익은 과일’로만 보지 말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교내 교외의 전인자를 보호 육성해 나가려는 인사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찬성

한울/타리/사람들

다종교 동아리가입에 대해

지금의 동아리 문화는 하나의 커다란 문화운동이라는 전제 위에 경의를 내세우고, 소비·향락적인 부분을 일소하는 문화운동으로서,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구조의 모순을 철폐하는 실천의 강령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내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서로 각기 다른 활동 목표를 갖고서 나름대로 창조적인 모습속에서 대학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발전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주체는 자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만 보다 더 노력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공동체 문화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특수성을 더욱 빛내고, 동아리 문화의 발전적 측면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은 종교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의 참다운 종교인의 자세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라면, 같은 신앙을 가진 동아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도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때 다종교 동아리의 동아리 등록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종교문화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서경대, 연세대, 숭실대, 중앙대, 이대, 원광대의 경우에도 상아탑내에서 동지의 신앙을 소중히 하는만큼 다른 종교의 동아리 등록

반대

많은 학생들이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어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린클러'와 다른기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종교문화 활성화에 한몫

최소한의 질서와 경계 필요

사실, 우리학교는 1906년 불교사상을 건학이념으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원흥사에 명진학교를 설립, 1940년 해화전문, 1946년 동국대학을 거쳐 1953년 명실상부 동국대학교라는 종합대학으로의 성숙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과거 명진학교나 해화전문의 성격에서 본다면 불교학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은 그 성격에 있어 특수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보편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불교의 사상의 건학이념이라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을 허용해, 지금은 더욱더 발전된 각자의 신앙인들의 참된 길을 걸으며 동아리 문화 발전의 일환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잘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기존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비방하는 모습은 상아탑내에서의 좋지 못한 모습이다. 서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종교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동국대는 종합대학이니까 여러 종교를 인정해

동문칼럼

이러 사람은 눈보다 뛰어난 렌즈가 있는가. 사람의 코보다 정확한 후각이 있는가.

‘사람은 아무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더러는 사람이 짐승보다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풀잎같은 정정, 그 자체인 것도 사람이며 남을 살려내고 자신이 죽는 것도 사람이 아닐까?
순박한 시골 할머니의 미소를 보라. 어린 아기의 저 이슬로 맺은 듯한 눈물을 보라.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보라. 어디 무

사람이 없는 것은 공포일 뿐이다. 거기 어디엔가 사람 발자국이 놓임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숨 쉬는 지구를 느낀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어둠 속에서 불빛 한줄기 번져나옴은 꽃보다도 더 진한 반가움을 일깨워 준다.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위해를 인신한 것은 무엇이든 무엇이든? 아마도 그 첫 번째는 눈을 위한 사물이며 두 번째는 귀에 의한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각막이식수술에 의해 이 세상을 처음으로 내다본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

신관호

<학생처 취업계장·본사 전 편집국장>

문학... '진짜' 인간의 적나라한 기록

사람의 성대를 뛰어넘은 악기가 있는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우리 마음을 황홀케하는 것은 사람의 성대 가운 데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붉은 여색보다도 아름다운 미도 없지는 않을 화가로 부러 들기도 했다.
자연도 물론 아름답다.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서 그 깊은 밀림에, 광활한 사막에, 저 넓고도 깊은 바다에

다. 동정과 회색과 인내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 없고자 한다.
'꽃'의 향기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만을 소유하지만 인간의 향기는 무한대에 머문다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 대학인의 지혜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 남북한 갈등구조의 발전적 해소방안
● 남북기(문화)의 시대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 한민족공동체 형성 위한 이념과 방안 모색
● 민족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대 상 대학 재학생 (신분대학 포함)

시 상 ● 최우수작 1편.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100만원
● 우수작 2편.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각 50만원
● 가 35편. 부총리 겸 통일위원장상 및 장학금 각 30만원

마 기 1992년 8월 31일

분 량 200x250mm 기준 100매 내외 (단, 5매 내외의 요약본 등 서 제출)

발 표 1992년 10월 중 (개별공지)

보 발 곳 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 논문 제출시 재학생증서 1부 첨부
● 상세한 내용은 통일원(☎02-738-7522)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유관 연구소에 문의

프랑스어

5~6월 학기 수강 등록 접수중
● 개강: 92. 5. 4. (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앙스프랑스어

● Manger 1, II, sans from 1, II, III
● au chape 1, II, III, bonne route 1
●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 traduction, thème SFP 유학준비반
● 각 과생 특강 수강반, 문법 총정리반
● conversation libre, 시제대어반
● 생일부여 불어, A, TV 뉴스반

seoul 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GU: 255-4630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法蘭西文化財團

대학(원)유학

NEW

학업성적은 첨단 유학 정보 검색시스템과 상의 하십시오. /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 최적의 학교를 선정해 드립니다. (TOEFL, 조건부 입학, 인정여부, 특수전공, 비용, 장학금 등)

자체개발, College Board, Peterson's의 검색용 S/W - 미국 400여개 영어학교, 미국, 캐나다 지역 2000여개 대학 정보 검색

Silver Platter의 CD-ROM DB - 미국·캐나다 지역 1500여 개 대학원의 300여 전공, 3100여 Program, 연구내용, 프로젝트 등의 세부 정보까지 검색

※ 적은 비용으로 신속할 수 있는 Independent, Semi-Dependent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유학정보서비스 LSB INTERNATIONAL 517-9438, 7372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

Venus Video

바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타구하는 아름다운 / 그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단아한 아름다움과 우아하고 기품있는 여성들만이 있는 나라에서 선연하게 만나고 싶은... 같은 눈매를 지닌 매력 있고 수줍은 여인이 향유 내 자신의 모습이라면... 자, 그럼 당신의 것은 아름다움으로 도전해 보세요

● 저 격: 대학 재학생(여)에 한함.
● 유효기간: 수시 1회 응모는 본사 광고부 대서
● 문의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54 (주) 신영 광고부 855-5011-5
● 기 간: 92년 5월 15일까지

제 123기 수강생모집

● 개 강: 1992. 5. 4 (8주)
● 강 사: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일 75분 주 5일
● 반 편 성: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제 123기 수강생모집

● 개 강: 1992. 5. 4 (8주)
● 강 사: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일 75분 주 5일
● 반 편 성: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군·행정병 모집

유공자특별전형

1. 고졸이상 17~26세
2. 행정병수특기부여
3. 매월 단독 입영
4. 6주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유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반
● 차트(일반행정)반
● 타자사무행정반

합인성학원

☎ 730-6946~7
종로1가 무수계로 2층

유니시무터자재점

☎ 735-2323, 9716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옆

이 시대의 우리문학

전망부재와 방향성 상실의 징후

○... 최근 문단에선 자유주의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
 ○...이 쟁쟁화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문단이 인간생활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것...
 ○...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내고자 한다. <편집자>...

첫번째 '바람부는 날이면...'으로 대표되는 도시시

1
 -어디로 갈 것인가? 막히는 오일 않는다. 후기산업사회의 번두리 외진 정류장 이 시대의 시는 땅살이다. 절적인 어음이 갈리는 도시, 그곳에 그들이 버려져 있다.

고도자본주의사회의 개인은 삶의 무목적성과 미래 상실이라는 새로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개의 존재는 다중화된 경제구조의 그늘 안에서 주체상실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살아야 하며 그들의 적은 어느 곳에서도 그 실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탈중심화라는 급격한 변화가 야기시킨 억압적 총체의 해체는 실제로는 더욱 많은 부정한 정우들만을 낳을 뿐이다. 이제 적은 하나가 아니다.

2
 그것은 꿈이 아니다 비탄만 부르짖는 인공위성을 통해 중계된 프로야구 프로축구 결승전 마술/쇼 쇼 쇼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 붕괴되는/메틀린 장벽 국회 청문회/유망의 웃음 입고/컴퓨터로 전자동조절되는 조령 발으며 부대 위에서 있는 나뭇/TV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나의 현실은 TV 나는/TV 시민/나라 잠자리들 같이 하는

TV는 숨을 쉰다.
 -하재봉 '비디오/TV는 숨을 쉰다' 중에서

구제 핸드백을 든 다짜들 오에, 바람불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저 호박진 허벅지들이여/사들지 않는 번뇌의 꽃들이여/하얀 다리들의 숲을 지나 나가는, 끝없이 이어진 내 번뇌의 구름다리를/충성충성 바라본다 이 거추장스러운 관능의 육신과 마음에 연결된 동양을 같은 다리를 걷는 한 소의 영기 위하여, 바람부는 날이면/현양소 평센타 현대백화점 네거리에 딱하니 결과부과 들고 앉아/은

3
 90년대 시의 특징은 현실적인 물질적 중요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거리두기의 정도에서 주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80년대의 시와는 달리 90



도시시는 후기산업사회의 문명과 기술이 지닌 폭력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오히려 칙칙리다.

글 쓰는 차례

1. 도시시의 새로운 정서
2. 대중소설의 대중성
3. 시의 사회적 진실
4. 역사의 소설화
5. 총평

환경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으며 어느정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다. 즉, 시적 관습의 주된 대상이 일상적인 도시생활과 환경문제 등, '큰 세계'에서 '작은 세계'로의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재봉의 시는 현대의 물질적 행복을 인한 비인간화라는 하나의 현상을 그 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의 문명과 기술이 지닌 폭력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로 그의 시에서는 감각적, 물질적 쾌락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인 거리는 거의 상실되어 있다. 하재봉의 시가 지닌 허구성이 이점에 존재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쾌락적 논리에 대한 지식인적 대응이라는 전통적인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그로서는, 현실적인 기술문명의 폭력성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속물근성(?)을 감추는데만 급급해 있을 뿐이다. 80년대 모더니스트인 하재봉의 시적관점은 흔히 그가 새로운 현실비판의 시를 쓰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의 시에서는 오히려 이미 타락해 버린 지식인의 낭만적인 자기

곳마다 바스러져가는 배로/시를 쓰며 버리고 있다고(비디오/왜? 중 일부)에는 후기산업사회의 시는 지식인의 낭만적 허위의식이 너무도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유하의 시는 상대적으로 하재봉에게서보다는 지식인적인 감흥이나 허무의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역시 욕망과 쾌락의 거리에 몸을 담그고 휩쓸려가면서도 '하나'라는 유년의 공간을 떠올리는 애초에 하나의 관찰자에 불과하다. 그에게서는 문명 자본주의적 쾌락이 속물근성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호기심 많은 눈초리로 '갑구정'으로 상징되는 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성 위를 기웃거리려는 '흔들'에 가깝다. 여기에 그의 시와 동시대들 '사는 우리 세대의 이율배반이 존재한다. 이런시절 해체되어 놓인 농촌 공동체를 지켜본 '흔들'과 도시 번두리 코르포라티는 언제나 도시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관찰자의 시선, 이미 시작적인 쾌락의 강렬성에 몰들어버린 도시의 흔들은 능동적으로 쾌락 속에 몸을 던지기보다 수동적인 휩쓸림에 자신을 맡긴다. 그에게는 그러한 쾌락이 '직'일 수도 없고 또한 자신의 것일 수도 없다. 그에게는 이미 해체된 '하나'라는 심적 공간과 키치(Kitschy)문화에 대한 호기심어린 동경이 있을 뿐이다. 유하의 시에서 비판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런 이율배반적 성격이 그를 단란의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신세대 시인의 표면적 경향은 현실적인 쾌락에 대

결여된 진정성이 그들의 감흥의 주원인이 되고 그 감흥은 현실적인 삶의 이율배반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모순 자체가 이미 그들의 삶의 조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의 허무주의적인 비극의식은 싹트기 시작한다. 허무적 쾌락주의를 타락한 현실을 사는 삶의 한 양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시는 역설적인 타락에 시나브로 몸을 던져려 하는 것이다. 최근의 젊은 시인의 경향이 신시대의 회복과 파도스적인 비극의 시, 감각적 쾌락의 시 등 다양해지는 경향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3
 90년대 시단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성과 신인의 구분이 없는 서정성으로의 복귀에 있다. 80년에서 90년대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나타난 국내의 상황의 극심한 변동이

문단에 던져준 충격은 신세대의 새로운 감수성에 대한 주목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실제로 그것은 박노해, 백무산, 오봉욱, 정인화, 김형수 등 사회변혁운동세력의 침체 내지 퇴조와 재를 같이 하고 있다. 80년대 '시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 노동시와 재래문법에 대한 해체시-이성복, 최승자, 김정환, 장지우, 박남철 등-가 동원성상에 공존할 수 있었다는 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이러한 기존의 관념은 문단에 가해진 내외적 압력과 새로운 사회적 현실의 출현에 의해 와해되고 결국 신세대의 대거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90년대 시단은 어느 면에서든 지난 80년대와 대조되는 '반정적 고갈'이 필요했고 더불어 90년대적인 새로운 현상-후기산업주의라고 불리는-에 대한 신세대의 '인식론적 전환'을 불러왔다.

90년대 시의 새로운 특징은 신세대 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전망부재와 방향성 상실의 징후에서 찾아진다. 신세대대의 달리 그들의 상실감은 지배적 권력이나 경제구조의 침묵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방향은 거대화된 자본주의사회의 일부로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주체의 예소함에 비추어본다. 자본주의 사회의 굴레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그 속에 소속된 주체가 그 사회 모순의 일부가 되는 현실 속에서 신세대의 방향성 상실은 본질적인 인간 자체에 대한 고통을 회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일상적 생활과 문예에 치중되며 극단적으로는 문학 사회에서 타락한 대응으로서의 무방향적인 허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김준식
 (문학평론가)

물질적 풍요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거리 지우기

허위적 비판-방관적 즐거움의 태도 표방

품은 일회성의 효용을 가질 뿐이며 고도소비는 항상 새것에 대한 선호성을 부추긴다. 모든 가치는 감각적 만족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쾌락의 역제는 죄가 된다. 쾌락의 만족을 위한 유행의 변화는 거의 파시즘적인 속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

90년대의 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엄연한 현실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책임이 어떤 결실을 야기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이미 그러한 체제에 길들여져 있음을 시인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라는

부정만을 볼 뿐이다. 역설적으로 하재봉의 시에서 물질적 쾌락과 기술문명에 대한 은밀한 고무, 찬양(?)의 목소리가 때로는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건 왜인가? 그의 시의 한 구절 '나 여기에서 햇빛 닿는 곳마다 찍어가는 살과/마살치는

빛·스승



트 카리야미트라(Kalyāna-mitra)의 번역으로 그 본래의 뜻은 '좋은 빛'이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상·하의 위계관계가 아니고 서로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外護), 잘·잘못을 서로 일깨우고(敎護), 서로 존중하면서 교정하여 서로 새롭게 하는(同行) 관계였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세존의 초기교단에는 매우 추후스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석가세존시대부터 인도의 정마월 3개월에 수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향을 굿하고 수도하는 '안거(安居)'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안거가 끝나는 날은 유력 보름날로 함께 수도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원로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 전체에게 자신이 그 동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지적된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불교에서는 스승의 자리에 있을 만한 덕견(知見)과 지망 및 지도력을 지닌 사람을 선지식(善知識)이라고도 한다. 이 선지식은 산스크리트어로 그 본래의 뜻은 '좋은 빛'이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상·하의 위계관계가 아니고 서로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外護), 잘·잘못을 서로 일깨우고(敎護), 서로 존중하면서 교정하여 서로 새롭게 하는(同行) 관계였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세존의 초기교단에는 매우 추후스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석가세존시대부터 인도의 정마월 3개월에 수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향을 굿하고 수도하는 '안거(安居)'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안거가 끝나는 날은 유력 보름날로 함께 수도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원로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 전체에게 자신이 그 동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지적된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세존의 초기교단에는 매우 추후스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석가세존시대부터 인도의 정마월 3개월에 수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향을 굿하고 수도하는 '안거(安居)'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안거가 끝나는 날은 유력 보름날로 함께 수도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원로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 전체에게 자신이 그 동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지적된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세존의 초기교단에는 매우 추후스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석가세존시대부터 인도의 정마월 3개월에 수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향을 굿하고 수도하는 '안거(安居)'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안거가 끝나는 날은 유력 보름날로 함께 수도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원로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 전체에게 자신이 그 동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지적된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회하면서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지를 편 손을 그림과 같이 다른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풀어 당기며 으르르 다.

레프트

때문에

올치아프다

③ 지로 머리를 가리킨 후 반쯤 구부린 손을 좌우로 움직인다.

중외제약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하루 한번 세척하면서 단백질제거까지- "바로 SPC액이에요"

중외 SPC액-렌즈관리의 올바른 방법과 편하게 하는 방법, 두가지를 만족시킵니다.

렌즈는 하루만 착용해도 각종 이물질이 끼이게 되죠. 세척과 행균, 소독까지 끝났다고 해서 이물질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버리기 쉬운 단백질을 깨끗이 없애야 되죠. SPC액은 렌즈를 세척하는 기능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능,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SPC액으로 하루에 한번 세척하면 그것이 곧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죠. 어때요? SPC액 하나로 세척하면서 단백질 제거까지-감 간편하겠죠? 한번 써보세요! 매일매일 SPC하면 눈도 콧도 편해요.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해결하는 중외제약 SPC액-

- 간편성 37가지 계면활성 물질의 복합치형. 세척과 단백질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관리가 편합니다.
- 무자극성 침개 행구어 지는 수월성.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눈에 편합니다.
- 안전성 소염의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눈에도 안전합니다.

눈에 참 편하고 경제적인 SPC액

편한 눈, 편한 관리-

SPC 액

에스피씨 액

●권장소비량: 1명 - 5,500원 (27개월분)

지점 사업소 상담실 ● 본사 841-1212(도 283 284) ● 북부 566-1332-5 ● 인천 83-4197, 7564 ● 수원 39-6220-7 ● 부산 531-7575-9 ● 마산 55-2256, 6181 ● 대구 254-5671-3 ● 광주 528-4806-8 ● 전주 254-3038, 77-0209 ● 대전 621-5981-3 ● 청주 57-1751-2 ● 원주 42-0404 ● 제주 52-5905

재단혁신의 방도

—보원사 매각전입금 확보부터—

등록금 협상이 마무리 됐다. 지난 1월2일 1차협상을 시작으로 3달여 동안 많은 우여곡절속에 진행됐던 등록금 문제는 제24대 총학생회가 인정하듯 일정 정도의 성과만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3월말 전면적인 재단혁신방안을 요구한 뒤 후속작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실상 인상을 줄다리기로 사용했던 올해 등록금 협상은 이후 학원자주화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을 계기하는 고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단혁신투쟁의 전면화가 기대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등록금 협상을 평가하고 이후 재단혁신투쟁으로의 전환 방도를 제시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1. 인상을 논란 속에 막내린 등록금 문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19% 인상, 3% 단위부치비 전환으로 대변되는 92학년도 1학기 등록금 투쟁은 재단혁신투쟁에 대한 어렵고 긴박한 감탄을 담은 채 정리됐다. 이제까지 등록금 투쟁을 전개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방학중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정책, 총학생회 집행부와 단과대 학생회와의 의견 대립, 경주 총학의 개별 투쟁 등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일단락된 등록금 투쟁의 폐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속에서 이후 재단혁신투쟁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힘차게 결의하는 것이 더 필요한 선차적 과제 일 것이다. 먼저 이번 등록금 투쟁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후 재단혁신의 과제를 살펴보자.

합의 사항중 첫째, 재단전입금 10억원 추가와 재단 전입금 확보, 마스터 플랜을 동국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사항이다. 재단전입금으로 10억원이 추가됨으로 기존의 10억원과 함께 20억원의 전입금이 들어왔다. 재단에서 총원전 전입금이 이제 매년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일이다. 또한 수백만평 재단 재산을 수익사업체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도 올해안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국발전위원회, 등록금 책정협의회 건설과 재단의 참여를 약속 받았다. 과거 경험에서 제도 합의가 이후 유명무실해지는 예를 볼 때 총학은 학생대표를 각각 구성하고 학교당국과 재단은 논의대표를 선정, 빠른 시일내에 모임을 가져야 한다.

셋째, 예·결산 공개이다. 이는 등록금책정협의회에서 공개하되 공개 날짜를 명시, 학생들도 간접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적 학사행정에 대한 합의이다. 이번 투쟁의 최고의 성과물 중의 하나이다. 이미 88년부터 합의됐던 것을 학교측에서 계속 파행적으로 유보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2학기 신규교수채용과 93년 교과과정개편에 학교·재단당국과의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복지시설 확충이다. 서울, 경주 모두 단과대, 과 복지요구를 등록금합의 이후에도 학교당국에 요구해 내야한다. 또한 등록금 3% 단위부치비액이 이 합의 내용속의 복지투자와는 별도로 쓰여져야 한다.

여섯째, 등록금 3% 단위부치비액이다. 이합의가 단순 예산조정상의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생외등을 거쳐 건전한 투자방향(예,

과발전기금, 학교채매입등)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학기 등록금은 최고 16%로 고지한다는 사항이다. 1학기 재단혁신투쟁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하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등록금 합의 사항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한계를 접하게 된다. 바로 동국발전위원회 등 제도합의나 민주적 학사행정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이를 재단 당국의 수용이 미흡했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90년 사립학교법 개악 이후 학원의 모든 권력을 재단에 집중돼 있다. 인사권, 재정권을 움켜쥔 무소불위의 재단은 언제든지 그들의 합법적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등록금 합의에서 재단 당국은 빠져 있다. 또한 재단 전입금 확보에 대한 명쾌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대항기 등록금 합의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이후 재단혁신 투쟁의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재단혁신은 과제로만 미뤄질 수 있는가

이번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재단혁신투쟁은 한계를 지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재단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먼저 짚을 수 있다. 이는 치밀한 사전 준비의 부재와 교양작업이 이뤄

막대한 부동산의 수익사업으로 전환 시급해 학교발전의지·재정능력있는 인적구조로 개선

3. 보원사 매각대금의 투자 가능성

동국학원 재단은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약 9천만평이다. 이중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이 사할관리법, 문화재 관리법등으로 묶여 있어 활용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태고종-조계종 분규 사찰인 보원사는 양 종단이 합의하여 매각 처리해 일부를 우리학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지난 89년의 일이다. 그후 매각처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빠져있다. 보원사는 신촌, 이대뒤쪽에 10만평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중 태고종과 나눈다해도 현금으로 300억원 규모는 매입될 수 있다는게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이미 중앙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단혁신투쟁의 구체화 된 실천 내용이다. 우리학교의 학

원자주와 투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을 재단으로 하며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삼고있는 민족대학인 우리학교는 근현대사의 힘난한 민족사 한 가운데서 민족적 모순이 총체화된 대학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불교가 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된 표상상의 직접 반영이 우리학교 건학이념 퇴색의 원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학교 학원자주화 투쟁은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사회민주화, 민족자주화의 직접적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단혁신투쟁은 학원자주화 투쟁의 핵심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단혁신투쟁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은 보다 구체성을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왜 매각처분이 되지 않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범동국인이 재단혁신에 함께해야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매각 처분의 실무담당자는 총무원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또 한 동국학원이사이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의 생각속에는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게 종교인들의 사고이다. 또한 부정유용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일부 불지자들로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히 될 수 밖에 없다. 보원사는 범동국인들의 요구가 하나로 모아졌을때 매각 될 수 있다고 귀결된다. 그것은 학생들간의 힘으로 무리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 교수, 직원, 대학원생, 재단이사, 승가도 자연히 동참하게 될

물이 못 된다는 지목을 받는 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이사가 학교 발전의지가 없고 20~30년 장기집권속에 고세하락에 속수 무책이며, 재원 확보에는 대안이 없이 학생들 등록금에만 의존하며, 있는 재산 갖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함 등등이 무거울 수 없을 정도라 한다. 또한 부정입학 연루, 토지매각사기의 혐의, 교직원인사시 개입등 많은 비리들이 이들 일부 이사가 저질러 왔다고 알려졌다. 성남 분당에 5년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확보한 병원부지 5만평의 국유지가 이사들의 세력사용때문에 성균관대로 넘어 갔다는 사실은 일부 부정비리 이사들의 작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의 한 예에 불과하다. 재단이사중 부정비리 의혹과 이용무능의 대표적



◁지난 88년 크게 기세를 드높였던 학원자주화 재단혁신투쟁은 5년째로 접어들어 지금은 '현재진행형'이다.

으로 학내외에서 이사회적 여부에 강력한 반발을 받고있는 모이사는 동대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의견에 개입했으며, 잇권싸움의 전례를 만들어온 당사자로, 30여년간 이사회를 차지해 왔었다 한다. 또한 공대페인트 사건등 다수의 부정비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한편 모이사의 경우 유신정권을 배경으로 재단이사로 들어와 학교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으며 정권이 두번이나 교체 됐는데도 유신잔재로 어용, 무능의 표상이 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부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재단이사는 더이상 학교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양심있고 능력있는 이사 한사람이 아쉬운게 우리학교 현실이다. 동창회나 불교계에 학교발전의지가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 이사가 영입되어야 한다. 동문들이 모교발전에 뜻이 있어 기부금을 내고

싫어도 밟고 밟길 사람이 없다는 일부 동문들의 지적은 우리에게 일부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이사들의 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5. 동국재단; 그 무한한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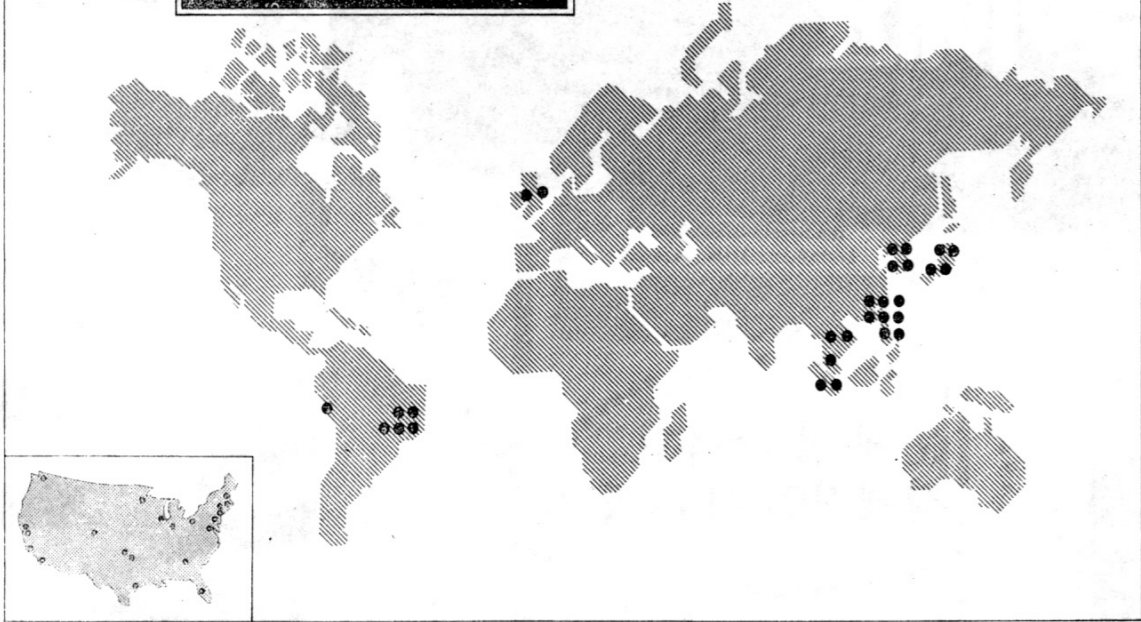
기숙사 건립을 예로 들어보자. 기숙사는 88년 학자부 당시 합의된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서울 천호동에 7천여평의 땅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부지를 기숙사로 건립키 위해 개발제한지역 해제 대상부 청원을 전개, 부지를 확보해야한다. 건립 1천평에 1천명 수용규모로 합대 신입생분 예약, 쿠폰판매 설립회사에 '학교신용'으로'완공까지 50% 주조 부족분은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 가능성은 동국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동국재단이 중립대학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펼친다면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전국의 소유인양을 수급할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활용한다. (예, 강원도 명주군, 일대 250만평) 둘째, 1천만평자를 밟고 금융관련사업을 할 수 있다. (예 신음금고 등) 셋째, 참산등 불교적 특성을 앞세운 휴양센터건립 넷째, 수도권 불교명진 다섯째, 기존 수영장을 실내수영장화해 전천후 사회 체육시설 마련등 활용방안은 무한하다. 문제는 이를 주도적으로 전개할 사람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재단이 사들이, 그리고 모든 동국인이 나섰을 때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실현가능한 수익사업이 진행되면 마스터플랜 제시, 재산처분과정전면공개, 현 수익사업(전산원, 수영장, 병원등)운영체제의 합리화등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6.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등록금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천토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다. 재단이 참여하는 동국발전위원회에서는 앞서 제기했던 발전안과 같은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마스터 플랜과 해야 할 것이다. 재단혁신투쟁의 당면과제는 보원사 매각 전입금 확보와 무등이사교제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 단과대 결의를 모아 총학생회로 집중됨이 당연하다. 결의된 단과대부터 보원사 담사 투쟁, 이사공청회, 비리사실청문회, 조계종중앙총회소집요구, 이사회 개혁요구, 서명운동, 항의전화등 다양한 방법들은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농과대, 사법대, 이부대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꽃밭가꾸기, 동학사방의 날 등 작은 실천부터 조직화해 내야한다. 이와같이 동학사방이 모아질 수 있는 장기적인 대중교양(학교전통바토날기, 자강심 부활 강연회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원, 동문등을 포괄할 수 있는 대책들-교수 임용공통평가위원회구성, 취업대책위원회등 동문과 연계강화, 직원복지, 동창회 활성화 운동-이 전동국인의 뜻을 모으는 장으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동국원체, 학풍퇴색을 더이상 볼 수 없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동국발전에 의지를 표명하는 실천들이 모여져 재단혁신이 과제가 아니라 재단전입금 확보, 재단전입금 조성등의 실천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취재부)

English: Your Passport to the Future!



ELS LOCATIONS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 주축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교육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운영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본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강남 565-0509 ELS종로 278-0509 ELS서초 585-0509

21 USA LOCATIONS

- ATLANTA, BOSTON, CHICAGO, CLEVELAND, DENVER, INDIANAPOLIS, NEW YORK CITY(2), OAKLAND, PHILADELPHIA, ST. PAULI, MINNEAPOLIS, SEATTLE, SAN FRANCISCO, SANTA MONICA, WASHINGTON, D.C.

29 INTERNATIONAL LOCATIONS

- SEOUL(3), PUSAN, OSAKA, TAICHUNG, BANGKOK(2), KUALA LUMPUR, JAKARTA, LIMA, SAO PAULO(5), KOBE(2), TOKYO, KAOHSIUNG, LONDON(2), BANDUNG

4·19 32주년 기념 등산대회

교직원, 재학생등이 참가해 17일 북한산에서 실시

4·19혁명 32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계승을 위한 '제23회 4·19기념등산대회'가 동국대 동산에서 재학생, 교직원과 동문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받아 오는 17일 북한산에서 열린다. (관려기사 12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재학생등은 학생회관, 다량관안산학부실, 교직원·동문등은 학생회에서 참가신청을 각각 접수하며 한 팀은 4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들은 다시 교직원부, 학년·학과별, 동아리별, 고교동문, 여학생등으로 참가하는 재학생부, 동문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동문부, 종합회교 학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종합학원부등 7개 부수로 나뉜다.

이번 등산대회는 70년이후부터 매년 실시해온 본교의 전통

있는 행사로 올해 등산 코스는 4·19기념담(우이동 수유리 소재)에서 출발해 대동문, 북한산장을 경유 도선사까지 이르는 행로이다.

한편 참가팀은 당일 오전9시까지 출발하는 4·19기념담에 도착해야 하며 시상 및 폐회는 중화지인 도선사 앞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13회 4·19기념 등산대회'는 오는 24일 경주 남산일원에서 열린다.

제6기 전대협 총회 열려 '반미자주화투쟁' 결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태재준·서울대 총학생회장)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인하대에서 제6기 전대협총회를 열고 92년 총노선수립을 통한 범청학련건설 및 반미자주화의 실현과 93년 전국총학생회 연합건설을 결의했다.

지난 9일 전대협 총노선 토론과 의결을 위해 인하대 대강당에 참석한 전국 1백8명의 총학생회장단은 앞으로 전대협이 전국민적인 자주, 민주, 통일투쟁과 민주정수립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전총련을 확고히 구축할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총노선에 대해 허영(고려대총학생회장)은 19명의 총학생회장 명의의 군대내 조지내의 민주주의 실현과 상층·기층간의 괴리를 없애 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견서가 제출되었으나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전총련건설시 회원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됐으나 이후 92년 하반기에 전총련건준위가 발족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이후 전대협의 투쟁노선은 그간의 정치투쟁, 조국통일, 학원자주화투쟁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시기적인 한계를 보였으나 이제부터는 통일적 연합건설상의 '반미자주화투쟁'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할것을 결의했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화생연합(범청학련)과 관련, 남측의 전대협과 북측의 조선학생위원회, 해외의 해외동포청년 학생협의회가 지난해 제1차 통일대추진 판문점 통일회담에서 결의한대로 범청학련 건설을 위해 오는 28일 평양에서, 오는 6월25일 서울에서 두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6기 전대협총회에서는 오는 5월28일(가년) 한양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일 인하대에서 있었던 전대협총회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노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마무리 사무직 11% 기능직 14%선 인상예 그쳐

직원노조(위원장=이건태·경상대 교학계장)는 지난 8일 학교총과의 6차협상을 끝으로 9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노조측이 원칙적으로 요구했던 단체협약안건 주요 핵심사항들이 93년도 연가예

단 다닐수다.

기발한 온도변경저 ○...사용 용도 변경에 이따기 난 모양인지 온방물엔 개발한 온도변경저가 생겨났다는데...

무엇이 실질적으로 단위 직원들의 불평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9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직원노조가 이같은 성과적 한계에 부딪힌 원인에 대해 노조 위원장 이진태는 "전진대회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참의 및 임금협정에 대한 승리적 관점의 부족으로 조직적이며 단결된 힘을 수반하지 못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농대 화단 복구

농과대 학생회(회장=라형진·농학4)는 지난 10일 식목행사로 해화관 앞 화단 복구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까지 연습림에 가서 묘목을 심었던 형식적 행사에서 탈피, 실질적 사업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이번 화단 복구사업은 해화관 화단 울타리치기, 잔디파종, 기념식수, 나무에 비료주기등이다.

유영중등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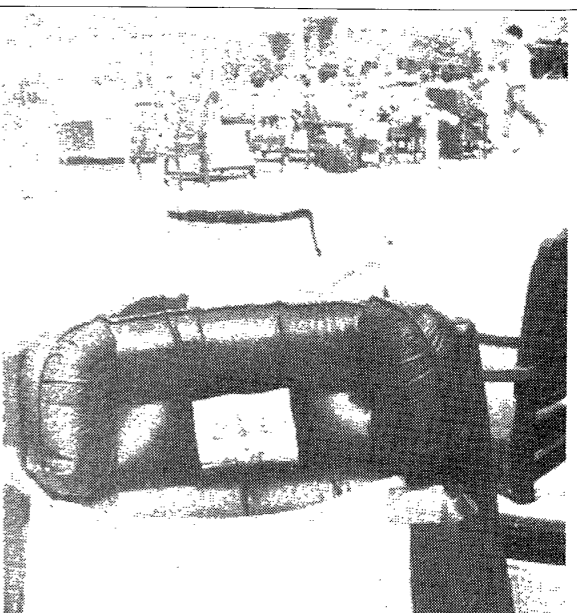
본교 유영중(무역 75년졸)등문이 지난 7일 종합전시장에서 거행된 전자전기 2백여 수출기념행사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유영중은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메디슨 주식회사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춘계야구대회 출전

현재 2승 1패

본교 야구부는 지난 6일부터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춘계 전국대학야구대회에 출전해 2승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일 성균관대의 경기에서 정영규(국문4)군이 홈런3개를 날타, 12대6으로 승리하면서 선수들은 타격의 호조를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전적을 보면 단국대에 7:8(패), 경성대에 12:7(승)이다. 한편 예선 경기 마지막인 오늘 15일 고려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8팀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된다.



총장님의 빈자리(?) 재단혁신을 요구하며 끌어낸 총장실과 이사장실 집기위로 무심한 학생들이 한가롭게 불날을 즐기고(?) 있다. (사진·글 조용수 기자)

국보법 철폐 투쟁본부 결성식 17개 재야 연대 결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 결성대회'가 총학생회 후원으로 전국연합, 불교인권위원회등 17개 단체와 학생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일 관세관청에서 열렸다. (관련인터뷰 5면)

이날 투쟁본부 공동대표인 지선(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회장)은 대회를 통해 "헌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범

민주연합등을 탄압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저버렸다"며 "통일문제 노력없는 헌정권이 악용하는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성 선언문을 통해 "조국분단 48년동안 '법'이라는 미명아래 사상과 인권의 제도적 억압장로 군림해온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제정후 오랜 세월동안 간헐적 내란장기수와 양심수들을 위해서라도 범청학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후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학복위, 영어특강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강화에 걸친 영어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Vocabulary and 아카데미 TOEFL은 지난 3월9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실시하며 영어회화강좌를 동시통역관, 미국인의 강의로 지난 3월13일부터 오는 6월6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통역강사는 지난 5년간 실시해온 것으로 매월 13일 개강하며 7개월 코스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치뤄 전체수석 송봉섭군등 10명 합격

지난 10일 발표된 제41회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 본교는 송봉섭(경행4)군이 전체수석을 차지한 것을 비롯 경찰행정학과 등문 9명이 최종 합격했다.

총 10명의 최종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송봉섭(4), 김희복(89졸), 서복기(89졸), 김영만(90졸), 임실기(90졸), 김진호(92졸), 오상택(92졸), 서대호(92졸), 고도철(92졸), 한영복(92졸) 등이

4·19계승 체육대회(회장=권성훈·경영4)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대운동장에서 '4·19의계승 체육대회'를 한다.

학과소식

선학과 과총회가 교과위원회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와 정정부 1년 사업계획, 예산 편성안 공개를 안건으로 오는 24일 열린다.

영문과 지난 13일에 명진관(A204)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제로 한 공개강의가 있었다.

또한 지난 10·11일에 강촌에서 연합모모지를 가졌다.

사학과 오는 15일 파내 소모임인 고전연구회의 발표회를 오후 5시에 명진관(A109)에서 갖는다. 또 1·3학년의 진선 촉구경기가 오는 18일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법학과 오는 16일 오후1시 동국관(L501)에서 동국관총회에 따른 공간확보와 학생이수, 등록금부담방향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시뮬레이션과 매주 월요일 오후5시30분 원동관(E305)에서 제방강연회를 실시한다.

미술학과 '우리미술 시각문화의 리얼리즘'이라는 주제로 이영욱(미술평론가)씨를 초청해 제5회 학술세미나를 오는 15일 오후3시부터 동국관(L101)에서 개최한다.

대학원 학생회 최종안 제시 발전방안 논의 제도화등

대학원 학생회(회장=김대중·행정학)는 오는15일 '등록금협상 경과보고와 최종요구안 및 투쟁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대의원회의를 동국관(L101)에서 개최한다.

학생회가 대학원측에 제시한 최종요구안의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 △대학원 발전위원회 구성 △학술활동(동원논문발간) 및 연4회 신문발행비 지원 △학생회의 자치활동 보장 △주요 선임(파인원 30명 이상인 학과) 및 과대표 학원 장려금 지급등이다. 하지만 대학원측은 학생회가 제시하는 요구안을 대학원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방침이며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태다.

이에 학생회측은 동국의 학풍쇄신과 장·단기적인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발전위원회를 구성, 학교당국을 비롯

한 각 주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격부 최병우 2관왕 차지

본교 사격부 소속 최병우(관경·2)선수가 지난 31일부터 4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U·I·T월드컵사격대회에서 소구경 3자세와 소구경 복사에서 합계점수 총 1천1백44점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자연과학관 공사 진척률 25%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 신축공사(소장=이정일·생물학)는 지난 27일까지 지체에 이어 1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이며 현재 25%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학생하기 나름이요

○...자고로 행복의牌坊은 자기집 처마 밑에 있다고 했잖, 동국사랑도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10일 농과대 학생회는 식목행사로 해화관 녹지대를 살리는 행사를 벌여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해. 그동안 보통 깃발에 보기 민망하던 곳에 거름을 주고 북돋아 가꾼 뒤 "동국사랑은 먼데 있지 않습니"라는 팻말을 달기도.

조약한 캠퍼스환경도 가꾸기 나름이라 열심히 탐험하는 학우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한 학우 "학교사랑은 학생하기 나름이요"라고 애교있는 한마디.

동국사랑은 먼데 있지 않아... 학생하기 나름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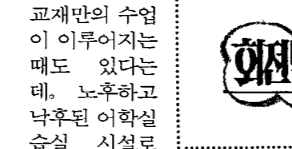
효과적인 강의진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강사 왈 "이제는 강의준비뿐 아니라 기계수리 방법도 연구해야 할 판"이라며 비꼬기도.

정도를 걸자

○...학문에는 왕도란 없다.는 말이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대학내에서 공공연히 펼친 길거두고 지름

강의가 사정이 좋지 않은 기자재로 인한 불충조정 고장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심한 경우 교재만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는데. 노후하고 낙후된 이화실습실 시설로



길만 찾으려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스피드시대에 뒤처지 않으려는 온방물 학생들은 원효관 앞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고자 바로 옆 잔디밭에 지름길을 만들어 이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요즘 세대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파릇파릇 들어오는 잔디들의 파릇한 외침 한마디 "배웠던 땅에 봄이기는 멀었소이다"가 들린다면 아주조 북이제부터 왕도인 계단길

로 다닐수다.

기발한 온도변경저

○...사용 용도 변경에 이따기 난 모양인지 온방물엔 개발한 온도변경저가 생겨났다는데...

속사정을 알아본즉 온방물 학생들이 일년내내 사용하는 보건실내 안전실이 일년에 단 하루 행사에 사용되는 모형 백상과 탐이 짐작하게 자리하는 바람에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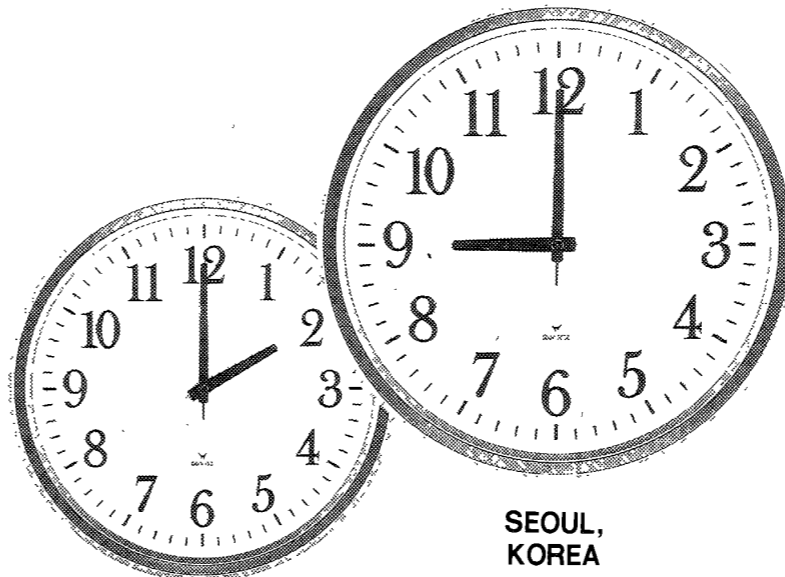
가쪽이나 열악한 공간을 확충할 노력은 안보이면서 보건실의 창고화를 피한 발상은 학생복지증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후궁후궁.

이에 보건실내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있던 한 학생 왈, "동국의 상징 백상도 보건실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모양이요."



1989년 1월 입사 해외사업부 동유럽지역 담당 김철환

김철환氏의 "7시간 늦게 가는 시계"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①

헝가리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에서 -

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 곧 이륙할 09:00 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내에서 지난 열흘간의 출장을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다뉴브 강변을 뿔뿔이 지나치면서도 신선한 감바람 한번 맡겠어보지 못할 만큼 비쁘게 보낸 10일간의 헝가리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많은 날들...

처음 동유럽 수출팀에 배치받았을때 -

1989년 1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배치받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동유럽팀」. 당시엔 「아직 수교도 안된 공산국으로 과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떤지 마우 한구석이 짙혔었죠.

마침내 소련으로 쳐내 수출 /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월. 마침내 우리는 당시 공산권의 대국 소련에 쳐내 수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뒤이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이제 동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의 자랑스런 차가 달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발 서울행 여객기에서 -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대 방송.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환한 아침인데 손목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아직 제 시계만 헝가리 시간이었군요. 시침을 다시 7시간 앞당겨 놓으며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차, 세계의 차 — HMD 現代自動車

진지한 산행... 민주화의 참된 뜻 찾아야

4·19 등산대회를 진단한다

북한산에서 4.19의 함성이 메아리쳐온다. 이른바 '4.19기념 등산대회'가 열리는 때다.

올해도 4.19기념탑을 출발해 대동문, 북한산장을 거쳐 도선사로 끝을 맺는 4.19기념 제23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원래 이 대회는 지난 70년 4월 19일 동국산악회, 동국교우회가 주최되어 4.19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동국인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지금까지 날씨변동, 4백여명에 달하는 참가팀으로 인한 질서유지 문제 등의 우려속에서 경기도 했으나 '동국인'을 하나로 묶는다는 기치아래 곳곳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이 대회는 그동안 '꽃다, 힘차게, 동국!', '힘차게, 드넓게, 슬기롭게', '꽃푸른 보람에 도전하는 동국인'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동국인다운 기상과 호연지기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한데



◇4·19명령 추모하기 위한 등산대회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우려져 서로 존경하고 믿고 아끼는 결속의 자리를 만드는 데 일문을 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참가팀으로 인한 질서유지의 부족, 과도한 음주, 고성방가, 사전준비 미비 등...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사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4.19 명령을 추모하고 참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전동국인이 참가해 협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타느냐 못타느냐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때문에 4.19명령을 위한 특별으로 시작됐던 오후엔 전동국인이 이들의 한을 푸는 대동 의 자리를 마련해 봄은 어떨는지, 이따금씩 되던 등산대회 참가자

들은 무척이나 비싸다. 산상테스트를 위한 공부하고, 복장준비를 위해 모자나 셔츠, 바지를 예쁘게 맞춰 입고... 물론 금상첨화겠지만 오히려 등산대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배낭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신문지를 채워넣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또 '휴일'의 문제도 제기된다. 휴가를 하는 것은 마땅히 전동국인이 참여해 인내를 배우고 상호 친목도모와 협동정신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등산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친목도모와 화합의 자리는 제쳐둔 채 오로지 아무말 없이 산을 오르내리거나 하고, 엄격하(?) 심사에 촉박한 관두세워야 하는 등산대회.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몇 년전부터 실시결과 발표된 참가자랑 시간을 갖고 있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오전에 순국선열과 4.19명령을 위한 특별으로 시작됐던 오후엔 전동국인이 이들의 한을 푸는 대동 의 자리를 마련해 봄은 어떨는지, 이따금씩 되던 등산대회 참가자

서평

이 책은 지리적인 거리로 인해 분화를 일으킨 한국어의 지역방언에 대한 남북한 학자들의 방언연구를 사적(史的)으로 검토·정리한 방언연구사적 검토의 연구방법을 제시한 총괄적 연구지침서로 평가된다.

본서의 편저자는 평안방언 연구에 20여개 성상을 경주한 사제의 권위자임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연구의 회합을 기념하여 방언학 관련논문과 말과, 기획·편집한 점이 뜻깊다. 더욱이 일제시대 및 본격적인 방언연구의 출발점인 195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남북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현주소를 결산한 연구사적 정리서라는 점에서, 또한 통일논의가 불꽃을 터뜨리고 있는 이즈음과 시의적절하게 앞으로 방언학이 나아갈 연구방향과 과제가 총체적·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본서 발간의 더 큰 의의가 있다.

책의 구성은 지역방언 관계는문 12편, 방언사 및 방언론 관계는문 2편, 총 14편으로 엮여졌다. 전자는 기술의 편의상 12개 방언(남한은 각도별, 북한지역은 3개)으로 나누



김영애 지음
(경문출판사·9천원)

방언학의 연구방향·과제 제시

가), 7.경북방언(이상규), 8.경남 방언(김영태), 9.제주방언(강정희), 10.황해도방언(박충구), 11.평안방언(김영태), 12.함경도방언(박충구) 등 12편으로, 각편은 대개 방언연구의 용어·문법·어휘면에서의 연구사 및 방언구획 논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방언사 관계 문헌자료에 대하여(홍윤표)'는 이론행실 도(二倫行實圖, 1518)에서 언해동

문학(諺解童蒙學, 1943)에 이르는 79편의 방언문헌자료 목록제시와 새 자료의 해제를 곁들여 방언사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금오도지역의 음라우트 현상(최태영)'은 방언연구의 이론과 실재를 보인 점에서 재료를 다하고 있으며, 책끝에는 색인을 마련, 이용에 편하도록 자상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간 방언학 관계의 종합적인 연구발표대회나 발표지면이 몇차례 마련되었으나, 통일조국을 내다보며 남북 학자들의 최근까지의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한 것은 이 책이 유일하다. 또 집필진을 볼 때, 해당 방언지역의 전공교수이거나, 해당 방언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란 점에서 논고의 신뢰성이 한층 더하리라 생각된다.

학문에서 연구자가 중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이 책에는 수백편 분량의 논지 목록과 내용이 분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방언학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리라 사상을 의심치 않는다.

정우영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짧은 생각해봅시다 ⑦

한철장사 '복사'

대학가 주변에 흔하디 흔한 풍경에서 배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줄비하게 늘어선 복사집이 아닐까?

혹자는 대학문화에 이어 '복사문화'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때가 도래하면 학교주변 복사집은 복사를 하러 몰려든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평소 수업시간을 소홀히 한 탓에 여러 친구들의 노트를 훑쳐 복사하는 학생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음츠의 현대인들은 고도로 발달된 기기들의 혜택을 누리지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 이제 '복사' 정도는 필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학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지만 문제는 일부 암행형 학생이 있기 때문이겠죠.

평소엔 말쑥한 행차행차 놀다가 손쉽게 그리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복사'의 능력만을 믿고 있는 학생을 여러분 / 그대들의 행동이 혹 한학기동안의 마음편 타인의 노력을 단 몇분만에 훑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부)

매체비평

알뜰살림 장만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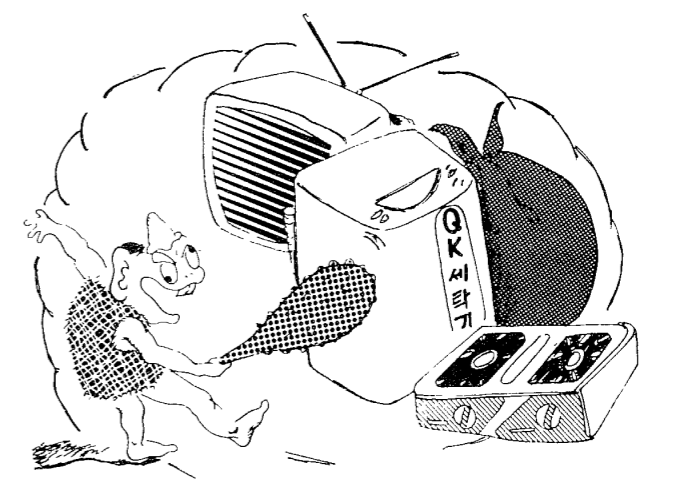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래문화라면 보면 도깨비 방망이 얘기가 가끔 등장한다. 무엇이든 원하는대로 쏟아지게 하는 이 방망이는 도깨비가 원래 입자지만, 이야기속에서는 흔히, 착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으로 상징된다.

한편, sbs에서 평일 아침에 매일 방송되고 있는 '알뜰살림장만퀴즈'에도 이 도깨비 방망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도깨비 방망이는 그 용도와 내용이 크게 달라져있다. 오늘의 도깨비 방망이는 오로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의 전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두들겨지고 있는 것이다.

'알뜰살림장만퀴즈'는 프로그램의

방망이 두들기면 '허깨비'살림 쏟아져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침 시간대의 주부대상 퀴즈프로그램이다. 분주한 아침시간이 막 지난 오전 9시 20분부터 20분간 방송되는데, 온갖 알뜰살림(?)의 장만과 해외여행의 기회를 놓고 네 명의 주부가 가족들의 열된 응원속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쟁-과소비 심리 부추겨

'운명론'에 입각한 지배논리 관철

1회전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한편 포피적인)상식문제가 출제되는데 각각의 문제에 상응하는 점수와 함께 상품이 주어진다. (물론 아직 완전히 준것은 아니다) 답을 아는 출연자는 재빨리 도깨비 방망이를 후려치는데, 이 모습이 아주 불만이다. 대개의 퀴즈프로그램에서 고상한(?) 부처대신 사용되는 이 도깨비 방망이는 이제 화려하고 풍부한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가전제품, 고급가구, 의류등에 이르러가까지 가정에서 쓰이는 온갖 상품들이 이 방망이에서 튀어나온다. 실력이나 풍부한 상품들의 진열은 결국 출연자에게는 치열한 경쟁심리를, 시청자에게는 자본주의 상품의 구매와

따라 자본의 논리가 엄청나게 강도로 침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듯이 시청자도 더 이상 지배논리에 유혹당하는 바보는 아니어야 한다. 소리없이 공격해오는 전파의 위험,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과 능동적 수용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박정아
(속대 국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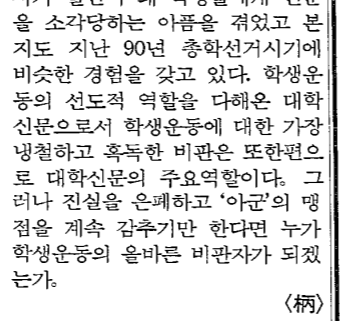
대박

▲대박령 기자제련에 대한 스케치기사에서, 기내 임시집무실에 '다산의 묵인심사'가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는 식으로 뽑을 것 (86. 4. 19). 86년 9월 민주연계 운동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말'지 특검호를 통해 공판부흥보정책안이 언론사에 매일 시달리는 '보도지침'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이 발라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다. 적개는 하루 1~2가지에서 보이는 7~8가지에 이르는 당시 보도지침의 진모를 밝힌 '주동자'는 한국일보의 김주연이라는 앙상적인 기자의 용감한 행동에 의해 서였다. 또 군부재무표를 폭로한 이진훈 중위의 앙상신문은 어떤가. ▲우리 사회에는 무서운 진실이 너무 많이 묻혀있고 오히려 왜곡되고 줄절된 것이 얼마나 되는 세상이다. 6·29선언이 진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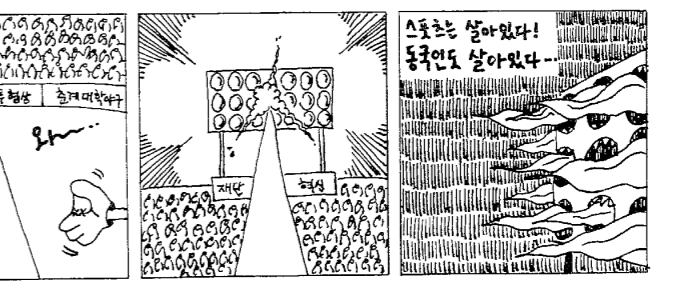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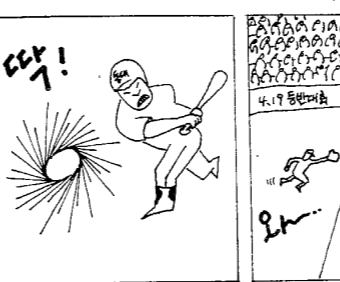
사의 작품이었다는 보도가 1백년 뒤에 나온다면 그 진실의 가치를 단지 '과거사'로 돌릴지 모른다. ▲진실은 사실·거짓 따위의 개념과 다르다. 지금처럼 언론과 대중매체가 '가진자의 입장에서 무수한 정보만을 받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그것을 감시하는 수용자의 자

가 있는가, 그러면 왜 자본주의의 최후의 시궁창에 들어가려 하는가. ▲외압에 슬한 것자음을 보이며 자랐던 것이 언론이다. 특히 시대의 외압에 부응하며 신문이 소각되어도 그것을 보도할 수 없다는 대학신문의 역사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의 대학신문은 그 외압을 학생들에게 받기도 한다. 몇년전 모 대학신문은 취재기사가 발단이 돼 학생들에게 신문은 소각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본지도 지난 90년 총학생선거시에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학생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온 대학신문으로서 학생운동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 혹독한 비판은 또한 언론으로 대학신문의 주요역할이다.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고 '이론'의 명점을 계속 감추기만 한다면 누가 학생운동의 올바른 비판자가 되겠는가.

(柄)



찰개구리
김태준 (14)



동국대학교 개교 86주년 기념
동대신문 창간 42주년 기념

제30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 모집

장학금 지급

주의사항

작품제출기간

작품제출처

본 대학교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학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문학의 재확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0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는 본교 입학후 장학금 지급의 혜택이 부여되오니 가장 권위있고 전통있는 이 향연에 전국 고교 문학도들이 많이 참가하여 영광을 얻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종목

(가) 시·시조: 2~3편
(나) 소설: 1편(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다) 수필: 1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응모·심사절차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고교생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예선(원고모집)에서 입선자를 뽑아 개별 통지하고, 5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본교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케 하던 최종 입상자를 결정한다.

시 상

(가) 각 종목별로 장원 1편, 우수작 2편, 가작 2~3편은 시상함.
(나) 1차 예선 입상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함.

장학금 지급

(가) 각 종목별로 장원입상자가 본교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나)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반액을 면제함.
(다) 재학생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을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가) 응모 작품에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 등을 반드시 쓸 것.
(나) 응모 작품 결본에는 <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제출>이라고 쓴 것.

작품제출기간

1992년 5월 1일~5월 7일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우편번호 100-715)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귀중

